

KEP CO

2025 June vol.624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작은 것들의 소중함



4

COVER STORY

Do-No-Harm의 시대, 무해력이 만드는 새로운 신뢰

6

HOT ISSUE 1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대통령 기념패 수상

8

HOT ISSUE 2

2025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

10

HOT ISSUE 3

오사가 엑스포에서 펼쳐진 한국의 빛

12

HOT ISSUE 4

제21대 대통령선거, 무결점 전력공급을 위한 노력

14

HOT ISSUE 5

「한국형 HVDC」기술 자립으로 에너지 강국의 미래를 꿈꾸다
HVDC 기술 워크숍

15

HOT ISSUE 6

한전과 언론을 잇는 홍보담당자 워크숍

16

SIGHT

500kV HVDC 동해안-수도권 건설사업 현장을 가다

20

KEPCO STORY 1

전력 직접구매제도를 생각한다

24

KEPCO STORY 2

봄철 계통안정화를 위한 조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26

KEPCO STORY 3

미래를 이끄는 힘(POWER), New「KEPCO 인재상」재정립
- 미래 글로벌 에너지를 선도하는 ‘P.O.W.E.R players’

28

궁금한 이야기 K

한전 에너지효율 전문가가 알려주는
여름철 대표가전별 에너지 절약 꿀팁!

30

THANKS FOR PRESENT

과즙 가득 상큼한 과일로 비타민 충전 100%
전력망입지처

34

SPACE

무해한 나의 휴식처
트리비움

38

CURATION

‘무해력’ 충전하는 6월의 문화 콘텐츠

42

TREND

‘더 지니어스’ 같다… LG가 만든 ‘라이프스 게임’
- ‘라이프스 게임’, 콘텐츠로 기업 가치까지 높인다

46

INSTAGRAM

48

KEPCO TALK

50

KEPCO QUIZ



귀엽고 친근한 아이템인 키팅, 마그넷 등이 요즘 인기다. 평소에는 주목받지 못하는 미미한 생명체나 사물을 재해석해 만든 피규어, 유머러스한 표정의 인형 등이 SNS에서 ‘힐링템’으로 불리며, 일상에 소소한 웃음과 위안을 준다는 후기가 이어진다. 강렬하고 압도적인 것들에 둘러싸여 살아온 우리는 이제 작고 귀엽고 순수한 것들 앞에서 마음을 열고, 기꺼이 지갑도 연다. ‘무해력’이 대세가 된 세상이다.

Do-No-Harm의 시대,

무해력이 만드는 새로운 신뢰

Text 이해원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작은 존재들로부터의 위로

무해력(無害力)은 해롭지 않은 것들의 힘을 뜻한다. 자극적인 뉴스와 거친 댓글, 경쟁과 과시가 넘치는 세상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친다. 그럴수록 작은 것, 귀여운 것, 순수한 것에 기대어 숨을 고른다. 책상 위에 올려둔 미니어처 피규어, 스마트폰 케이스에 붙인 동글동글한 스티커, 심지어 돌을 반려로 들이는 ‘반려돌’까지 인기다. 단순한 돌멩이에 이름을 붙이고, 집을 만들어 주고 액세서리로 꾸며주기도 한다. 때로는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햇볕을 쬌게 하기도 한다.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존재들이지만, 그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과 ‘쉼’을 느낀다.

이런 작은 존재들에 대한 선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상은 더 불확실해졌고, AI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삶을 바꾸고 있다. SNS에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새로운 정보가 쏟아진다. 머릿속이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해롭지 않은 것, 나를 위협하지 않는 것에 손을 뻗는다. 그래서 무해력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복잡한 현실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심리적 안전지대가 된다.

‘해롭지 않음’이 이끄는 소비 트렌드

이처럼 ‘무해력’은 단순히 작고 귀엽고 순수한 사물이거나 존재를 선호하는 현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일상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제로칼로리 음료 시장은 3년 연속 두 배 성장률을 기록했고, 모든 카페에는 디카페인 커피 메뉴가 생겼다. ‘맛은 그대로지만 몸에는 해롭지 않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무알콜이나 저알콜 음료도 인기를 끌고 있다. 술 섭취를 최소화하거나 줄이는 ‘소버 라이프(Sober Life)’ 생활방식의 성장은 음주로 인한 건강 부담, 사회적 스트레스, 다음 날 숙취 등의 부담을 피하면서도 음료를 즐기고 싶은 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콘텐츠도 마찬가지이다. ASMR 쇼츠가 하루 조회 수 500만 회를 돌파하고, 아기 판다의 성장 영상은 수백만 조회 수를 기록한다. 연예계에서는 논란 없는 ‘무해한 이미지’가 스타의 생명력이 되고, 브랜드 세계에서는 사회적 이슈에서 자유로운 ‘착한 브랜드’가 각광받는다. 모두 ‘해치지 않음’을 내세운다.

관계와 내면의 변화

‘무해력’이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으면서, 인간관계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판과 논쟁 대신 사소한 칭찬과 응원, 긍정의 피드백을 남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완벽주의와 강박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서툴러도 괜찮은, 인간적인 모습이 오히려 더 큰 호감과 신뢰를 얻는다. 남에게는 더 관대해지고, 스스로에게는 더 너그워진다. 무해력은 약하거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진정성이 담긴 배려이자, 적극적인 긍정의 힘이다. 사람들은 ‘착한 척’에는 오히려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 진짜 무해력은 해롭지 않으면서도, 나와 다른 사람 모두를 편안하게 하는 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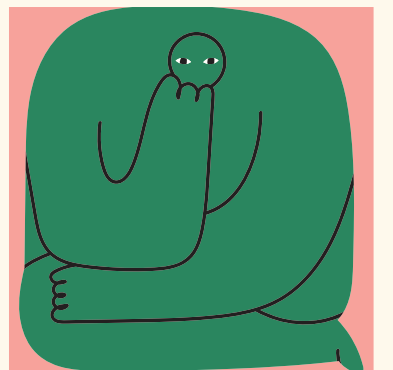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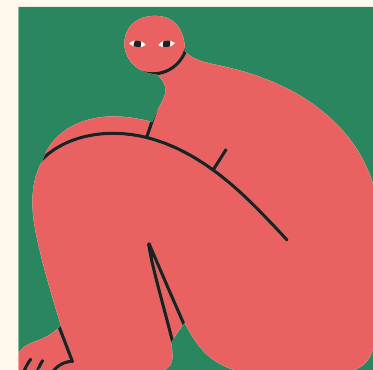
조직에 스며든 무해력의 역할

이런 무해력의 힘은 조직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누군가를 억지로 이기려 들지 않고, 강한 카리스마 대신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조직문화는 구성원 간 더 큰 신뢰를 자라나게 한다. 이런 문화에서는 갈등과 스트레스가 줄고, 오히려 창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진다. 강하게 이끌지 않는다고 해서 권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통제와 복종을 강조하고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권위주의가 아닌, 팀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팀원들에게 비전과 자율성을 부여해 유연성 높은 조직으로 이끄는 정당한 권위는 팀원들의 참여를 높이고 혁신과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인다.

압도감보다 무해함,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힘

조금은 아이러니하다. 본질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무해함이 힘이 된다. 무해력에 끌리는 것은 무의식적이고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마음가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해함’이라는 특성으로 메시지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할 때, 단순히 밋밋하거나 매력 없음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다소 모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안에 진정성이 담겨 있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를 받아들이고 공감하게 된다.

요즘의 세상살이는 만만치 않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기엔 현실이 너무 혹독하다. 사회적 갈등은 심화되어 이념, 계층, 세대, 성별 등의 구별은 점점 더 우리 사이를 가르고, 마음의 거리를 멀게 만든다.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날들 속에서 무해함은 심리적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고 있다. 작은 것들이 쌓여 만들어 내는 신뢰와 안정감은 결국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이 된다. 해치지 않음의 미학, 그 안에 담긴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소소한 행복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진정성이다.



HOT
ISSUE

01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대통령 기념패 수상

Text 양은선 자료제공 UAE원전건설처



지난 4월 29일 건설회관 2층에서 열린 해외건설 1조 달러 수주 60주년 기념식은 해외건설 60주년 및 1조 달러 달성을 기념하며 대한민국을 빛낸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치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진현한 국토교통부 제1차관, 한만희 해외건설협회장, 김동철 한전 사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장에는 건설사 대표, 공기업 및 공공기관 대표, 장관표창 수상자, 건설협회장 등 관련 인사들뿐만 아니라,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비롯한 일반 참석자로 북적였다. 신분 확인

과 함께 소지품 검사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입장한 행사장 내부는 많은 인파로 가득 차 있었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으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오며 행사가 시작되었다.

SBS 주시는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해외건설 수주의 역사를 한눈에 담은 주제영상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어지는 개회사에서 한만희 해외건설협회장은 “중동지역의 분쟁 등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건설인들은 결코 주저앉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으며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라면서 “그 결실로 1조 달러라는 자랑스러운 이정표를 세웠고,

이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우리의 기술력, 책임정신, 불굴의 의지를 세계에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의의를 밝혔다.

해외건설 1조 달러 유공 표창 순서에서 한전은 UAE원전 바라카 건설공사의 업적을 인정받아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대통령 기념패를 수상하였다. UAE원전 사업은 대한민국 최초 원전 수출이자 단일 규모 최대 건설계약으로, 한-UAE 양국의 관계를 최고 수준의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켰으며, 우리나라를 원전공급국 지위로 올려놓은 의미 있는 사업이다. 한전은 2009년 12월, UAE 원자력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형 원전(APR1400) 4기를 바라카 지역에 건설했다. 2021년 최초 1호기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후 2024년 최종 4호기까지 매년 성공적으로 상업운전에 돌입하며 한전의 원전 사업관리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각인시켰다. 현재 바라카 원전은 UAE 전체 전력 수요의 약 25%를 공급하고 있다. 바라카 원전의 성공은 향후 베트남, 사우디, 튀르키예 등 후속 해외원전 수주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전은 10대 프로젝트 선정 이외에도, UAE 바라카 원전사업의 수출 실적을 인정받아 공기업 중 유일하게 ‘100억 달러 해외건설의 탑’을 함께 수상했다. 이는 해외사업 30주년을 맞이한 한전에 더욱 뜻깊은 성과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사에 3년째 개근하는 영광을 안았다”라며 말씀을 연 뒤, 세계 각지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건설인들에 대한 존경의 표현과 건설 산업의 미래를 밝혀줄 마이스터고 학생들과 함께함에 대한 기쁨을 전달하였다. “해외건설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동력이었으며, 국가가 경제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극복해주는 하나의 구세주였다”라면서 “해외건설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 건설의 무궁한 발전과 참석자 모두의 건승을 기원한다”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격려사를 마쳤다.

이어지는 세리머니에서는 진현한 국토교통부 제1차관, 한만희 해외건설협회장을 비롯한 인사들이 해외건설 희망의 황금열쇠를 상자에 꽂는 세리머니를 펼쳤으며, 마지막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중앙대 건축학과 학생에게 황금열쇠를 건네며 미래 세대에게 해외건설의 황금열쇠를 전달한다는 의미의 세리머니로 행사를 마쳤다.

2부 행사에서는 한전의 윤동기 해외사업개발단 부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건설 60년 역사와 더불어 한전도 올해 해외사업 30주년을 맞이하였다. 현재 15개 국가에서 33개의 프로젝트를 운영 중으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종합 전력회사로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특히 2024년은 총 6.2GW 규모의 신규사업을 수주하며 한전 보유 지분 기준으로 약 6조 5천억 원의 매출과 4조 4천억 원 규모의 국내기업 동반진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전이 보유한 핵심 우수 기술력을 기반으로 동남아, 중국, 북미 등 10개국에서 13개 신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신사업과 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할 것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수상은 바라카 원전이 성공적으로 건설·운영되며 글로벌시장에서 벤치마크 사례로 자리 잡은 것을 국민들께서 높이 평가해주신 결과”라며, “앞으로도 추가 원전 수출과 다양한 해외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60년을 넘어 미래를 짓다’, ‘1조 달러의 여정, 세계를 향한 발걸음’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해외건설의 성과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이를 위해 피와 땀이 스민 노력을 쏟은 건설인들과 한전인들의 노고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HOT ISSUE 01

HOT ISSUE 02

HOT ISSUE 03

HOT ISSUE 04

HOT ISSUE 05

HOT ISSUE 06



방, 경찰 등 관계기관에 재난상황을 전파·보고·지휘하는 협업체계도 점검했다.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글로벌 안전한국 훈련'이라는 테마로 진행된 이번 훈련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난교육을 포함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이행했다. 또한 나이지리아 대사관의 참관, 외국인을 포함한 국민체험단의 참여를 통해 한전의 우수한 재난대응 능력을 세계에 알렸다.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대규모 풍수해, 화재·폭발 등 실제 재난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공조·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를 근거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 훈련이다.

시범훈련은 2022년부터 도입되어 본 훈련의 중점·변경 사항을 사전에 적용 및 점검하고, 본 훈련에 참여할 기관들이 훈련절차와 방법을 미리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HOT ISSUE

02

2025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

한전은 매년 시행하는 안전한국훈련에서 탁월한 재난대응 능력을 인정받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범훈련 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지진으로 인한 전력설비 고장과 이로 인한 광역 정전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하고 실제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Text 이범석 Photo 김보라

이번 훈련은 지난 4월 30일, 한전 충북본부에서 지진에 의한 전력설비 피해를 주제로 시행됐다. 훈련에는 충주시청,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기업, 국민체험단 등 17개 기관에서 227명이 참여해 재난 발생 시 협업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특수구조헬기, 소방차, 구급차, 이동식크레인 등 28대의 장비를 동원해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은 지진 발생에 따른 상황 감지와 전파를 시작으로, 변전소 고장, 송전 고장 및 사옥피해, 배전 고장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한전의 '지진피해대응 통합시스템'을 통해 지진을 감지하고 상황을 전파하는 것부터 시작해 전력설비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대응체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훈련했다.

한전은 단순한 소방 활동 위주의 훈련에서 벗어나, 로봇개와 모듈형 임시철담, 변압기 교체 등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복구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또한 2023년부터 현장에서 운영 중인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지자체, 소





사진제공. 코트라

HOT
ISSUE

03

오사카 엑스포에서 펼쳐진 한국의 빛

Text 양은선

자료제공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유산청, 코트라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로 꼽히는 엑스포(EXPO)는 Exposition의 앞부분을 따 만들어진 단어로 국제적인 규모와 체제를 갖추며 개최되는 박람회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세계박람회 공식 참가 기록은 1893년 미국 시카고박람회인 것으로 전해지며, 이후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한동안 박람회에 참석하지 못하다가 1962년 한국이라는 국호를 내걸고 미국 시애틀박람회에 참가하였다. 우리나라는 1993년 대전엑스포 개최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여수에서 인정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이렇듯 전 세계적인 행사인 엑스포가 올해는 일본에서 개최되고 있다.

일본 오사카 유메시마에서는 4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184일간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가 열린다. “Designing Future Society for Our Lives”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전 세계 158개국이 참가하고, 2,820만 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는 ‘마음을 모아’를 주제, ‘진심을 이어, 꽃피우는 생명’을 부제로 한국관을 운영 중이다.

한국관의 BI(Brand Identity)를 통해 주제를 엿볼 수 있는데, 연결(Connection)을 전통한옥 이음의 목구조인 가로와 세로, 수직과 수평으로 얹혀지는 시각적 이미지로 재해석하였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술, 기술

과 기술의 융합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진화시킨다는 의미를 담았다. 적색은 한국 전통문화의 우아함과 품위, 화려함 등을 상징하며, 청색은 기술과 융합한 지속가능한 생태계의 순환을 의미한다.

한국관은 버선, 용마루 등 한국의 선에 주목하여 출입구에 한복 소매의 곡선을 표현하며, 한국인의 문화적 유연함과 미감이 담긴 백색이 강조된 건축을 선보였다. 내부에는 한국의 대표 옷감인 ‘한산모시’ 구조물을 설치하고, 천정으로부터 빛 투과를 활용한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한국을 대표하는 백색의 마감재를 사용하고 경복궁 우진각 형태, 한복 저고리, 청사초롱 등에서 영감을 얻은 곡선을 활용하여 한국적인 디자인 요소를 가미하였다.

한국관 전면 대형 LED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한국의 발전상, 유산, 관광문화와 관련된 영상을 상시 송출하고 있다. 전시관 외관과 연계한 시각 효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미디어아트를 활용해 관심을 유도하였다. 국가유산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미디어아트 작품 ‘Heritage in Bloom: The Beauty of Korea’는 십장생, 일월오봉도, 한산모시, 인왕제색도 등 우리나라 대표 국가유산을 생동감 있는 미디어아트로 재구성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유산청은 5월 13일 ‘한국의 날(National Day)’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5월 17일까지 5일간의 ‘한국주간’을 통해 ‘한국 우수상품전’, ‘한국관광 페스타’, ‘조선통신사 뱃길재현’, ‘K-FOOD Fair’ 등 12개의 경제, 문화 행사를 집중 개최했다고 밝혔다. ‘National Day’는 엑스포 조직위가 공식적으로 참가국에 배정한 하루로서, 해당 참가국이 엑스포의 주인공이 되어 자국의 경제, 문화, 외교적 위상을 알리는 공식 행사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KOTRA 측의 요청으로 김동철 한전 사장이 참석하여 안덕근 산업부 장관, 유인촌 문체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함께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한국과 일본 간 교류의 역사를 재현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조선통신사선을 통해 4월 28일 부산항 출발 이후 재현된 한-일 뱃길을 따라 오사카에 입성한 ‘조선통신사 행렬’로 시작되었는데 조선통신사는 17-19세기 한-일 간 교류 사절단으로,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공동등재되기도 하였다. 이어, 1400여년 전 백제의 문화를 일본에 전달하여 ‘최초의 한류’라고 불리는 ‘미마지’의 이야기를 담아낸 전통 공연이 진행되었다. 전통적인 춤사위와 타악 두드림의 조화를 통해 세계인의 마음을 잇고자 하는 한국관 메시지를 전하였다.

이어서 한국의 매력을 ‘라이브’, ‘뷰티’, ‘패션’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풀어낸 특별 무대 ‘코리아 컬렉션(Korea Collection)’이 열렸다. ‘라이브’ 코너에서는 케이팝 공연을 선보이고, ‘뷰티’ 코너에서는 한국식 화장을 시연해 관객들이 직접 ‘케이-뷰티’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패션’ 코너에서는 ‘꽃놀이’를 주제로 한복 패션쇼가 무대에 올랐다. 그 외에도 ‘한국 우수상품전’은 국내기업 90여 개사, 오사카 중심 바이어 160여 개사가 참여하는 B2B, B2C 마케팅관으로 운영하며, ‘한국관광 페스타’는 ‘한국으로의 여행’을 주제로 총 54개의 부스를 마련해 대

한민국의 숨은 관광지과 항공·여행상품을 소개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문화 등에 대한 관심이 한국 제품, 기술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이런 오사카 엑스포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다양한 경쟁력이 시너지를 이뤄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코트라

HOT
ISSUE

04

제21대 대통령선거, 무결점 전력공급을 위한 노력

한전은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바쁜 한 달을 보냈다. 국가의 중요 행사인 선거에서 정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사업소에서 전력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했기 때문이다. 무결점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의 노력을 알아보자.

Text 이범석 자료제공 배전운영처 배전계통부

전력확보란?

선거·시험·국내외 정상급 인사 참석 행사·스포츠 및 기타 행사 등 중요 행사장에 공급되는 전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다중전원을 구성하고, 공급선로의 정밀한 검사 및 행사장 사전 점검 등 일련의 준비를 통하여 원활한 행사진행을 지원하는 KEPCO의 활동을 의미한다.

주요 전력확보 대상 행사는 정전발생 시 사회적 물의 우려 또는 국가 이미지 손상이 예상되는 행사,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국제스포츠행사, 국제회의, 행정기관 요청행사 등으로 한전에서는 행사의 규모, 영향성 등을 고려, 크게 4가지 등급으로 분류하여 전력확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력확보 업무수행 절차

첫째, 전력확보 종합계획 수립 단계로, 행사장 공급선로, 설비현황, 전력확보 대상의 비상전원 운영 여부 파악 및 다중전원 확보 계획과 설비점검, 모의훈련, 상황실 구성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전력확보 대상 송·배전 공급설비 점검, 보강계획 수립 및 추진하는 단계로, 열화상·광학 진단장비 등을 활용해 점검하고 취약한 설비는 보강한다.

셋째, 계통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는 단계로, 노후 설비와 고장 빈발 고압고객 구간을 다른 선로로 전환하고 전력확보 기간에 긴급공사를 제외한 휴전·할선·무정전 작업을 금지,

※ 전력확보 대상 등급분류

구분	Class A	Class B	Class C	Class D
선거	공직선거	정당 중앙당 경선	지방단위 정당 경선	위탁선거(정당경선 제외)
시험	대입수능	고입선발	공무원시험 등 국가고시 시험	기타 시험
스포츠 및 기타행사	동·하계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세계박람회(EXPO), 전국체전, 기타 지역단위 국제행사	거리응원 개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주관 행사	그 외 행사
정상급 인사	국내외 정상급 인사 참석 행사, 국가 간 정상급 인사 참석 국제회의 등 (외국 정상급 인사 참석 행사의 등급은 본사 및 관련부서의 결정에 따름)			



① ATS 설비점검 ② 개표소 현장 사전점검
③ 발전차 점검 ④ 전력확보 상황실 운영

인입 개폐기 등 주요 현장대기, 공급선로 Patrol, 긴급복구조비상대기를 통해 공급선로의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전력확보 준비상황 최종 점검 및 상황실 운영 단계로, 행사 주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및 본사, 사업소에서 전력확보 상황실을 운영하며 비상근무를 시행한다.

이번 대선을 위한 준비

6월 3일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 한전은 4월 말부터 전력확보 대상 공급선로를 정밀 점검하고 취약 설비를 사전에 보강했다.

이번 선거에 한전의 전력확보 대상은 개표소와 투표소, 사전투표소와 선관위까지 합쳐 총 18,388개소에 이르는데, 특히 개표소와 선관위 중요 설비들을 대상으로 '4중 전원'을 구성하는 기술을 지원했다. 4중 전원은 ① 기존 공급선로에 ② 정전상황을 대비한 제2 공급선로, ③ 모든 선로가 정전일 경우를 대비한 비상발전기, ④ 전원과 전원이 전환될 때 순

간정전을 방지하기 위한 UPS(무정전공급장치)로 구성해 무정전 전력공급을 실현한다. 이외에도 지하 투표소 등 정전시 조명확보가 필요한 개소에 대해 한전이 보유한 자동전환 비상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 당일 새벽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한전은 본사와 사업소에 전력확보 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확보를 위해 약 8,000여 명이 사전점검부터 현장 대기 등 비상근무를 시행하였다.

올해 하반기 전력확보 대상 주요 행사

올해 하반기 전력확보 대상 주요 행사로는 10월 말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담, 11월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한전은 주요 행사에 단 한 건의 정전사고,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무결점 전력공급을 위해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HOT
ISSUE
05

「한국형 HVDC」 기술 자립으로 에너지 강국의 미래를 꿈꾸다! HVDC 기술 워크숍

Text 양은선 Photo 김보라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HVDC 기술 워크숍은 지난 5월 16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전력신문사 주최, 한전 전력계통본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HVDC 기술동향 파악과 정보교류를 통한 국내 HVDC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장으로 한국전력, 학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제조사 등 200여 명이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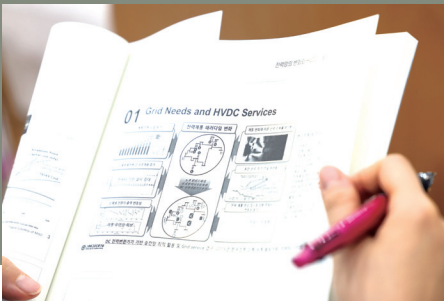
서철수 한전 부사장은 환영사에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HVDC 기술은 단순한 전력전송 기능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 시대의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의 중심축이자, 탄소중립 시대를 앞당기는 열쇠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우리 기술로 완성하는 한국형 HVDC 시스템 기술개발은 그 자체로 도전이자 기회라고 생각한다”라며 “작년에 200MW급 전압형 Back-To-Back HVDC를 양주변전소에 성공적으로 설치하였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GW급 전압형 HVDC 기술개발을 목표로 정부와 산·학·연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시련과 도전 속에서 묵묵히 진행해 온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은, 최근 동해안 울진에서 경기도 하남까지 280km에 이르는 송전선로 경과지 79개 마을 주민과 사업 협조를 100% 합의하였다”면서 “국내 최장, 최대 규모의 초고압 직류 송전망을 구축하는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며 환영사를 마쳤다.

이어지는 기술교류 시간에는 ‘HVDC 기술의 현재와 미래’, ‘HVDC 기자재 국산화’를 주제로 허건 연세대 교수, 이방욱 한양대 교수 등이 학술 발표를 했으며, 장길수 고려대 교수의 진행 아래 ‘HVDC 국산화, 산업육성, 해외 진출을 위한 산·학·연의 역할’에 대한 패넬토론이 열렸다. 참가자들이 발표에 대한 집중도도 높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의견 교류가 활발한 워크숍 현상이었다.

‘글로벌 에너지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미래를 함께 그리는 사람들이 모인 이번 HVDC 기술 워크숍은 HVDC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돌아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HOT
ISSUE
06

한전과 언론을 잇는 홍보담당자 워크숍

Text · Photo 이범석



전력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언론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장인 ‘사업소 홍보담당자 워크숍’이 5월 16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개최됐다. 전국 지역본부와 건설본부의 홍보담당 부장 및 차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전문가의 코칭을 통한 홍보역량 향상과 본사·사업소 간 소통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홍보처 언론홍보실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언론보도 사례 학습으로 전력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산업부 출입기자를 초청해 현장 전문가의 시각에서 언론사 현황과 특성, 효과적인 보도자료 작성법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들었다.



워크숍의 첫 시간에는 미디어 트렌드와 소통 방안에 대한 코칭이 이뤄졌다. 최근 인터넷매체가 폭발적으로 증가(2005년 286개에서 2025년 12,371개로 약 43배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면신문은 점차 감소하는 미디어의 환경 변화를 분석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전의 정책과 활동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소통 전략을 모색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언론사의 취재 요청 시 응대요령과 정보 제공 방법 등 여러 사례를 통해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을 분석하며 실무 노하우를 습득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어진 외부전문가 교육에서는 보도자료 작성 방법과 기고, 기획기사 작성법도 다뤘었다. 제목·부제목·본문 구성과 작성 요령, 역삼각형 구조로 중요한 내용을 먼저 기술하는 방법 등 실무적인 팁이 소개됐다. 특히 실제 보도자료 템플릿과 사례를 통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을 전달했다.

홍보처 백수현 처장은 “산업부 출입기자단이 60개사 166명으로 늘어나는 등 정확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정확하고 빠른 언론대응을 위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본사와 사업소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안을 신속하게 공유하자”라고 말했다.

HOT ISSUE 01

HOT ISSUE 02

HOT ISSUE 03

HOT ISSUE 04

HOT ISSUE 05

HOT ISSUE 06

500kV HVDC 동해안-수도권 건설사업 현장을 가다



전력망 확충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AI 등 첨단기술 발전으로 전력소비가 폭증하면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인프라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 하지만 동해안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수송하는 전력망이 부족해 발전한 전기마저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 신한울 1, 2호기 등 동해안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한 전력망을 구축하는 '500kV HVDC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전력망 부족 해소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중대한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호 SIGHT에서는 '500kV HVDC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사업' 현장을 찾아 이를 추진해온 한전의 눈물과 땀의 과정을 돌아보고, 본 송전선로의 중착점인 신가평·하남변환소를 둘러싼 쟁점과 한전의 멈추지 않는 도전을 조명한다.

Text 장은경 Photo 황지현

500kV HVDC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사업 개요

목적 : 신한울 1·2호기 등 동해안
발전력의 수도권 수송

비용 : 총 4.6조 원
(1단계: 2.7조 원, 2단계: 1.9조 원)

용량 : 총 8GW

가파르게 굽이도는 산비탈 비포장도로. 자욱이 날리는 흙먼지와 함께 아찔한 현기증이인다. 차를 타고도 쉽지 않은 산길을 힘겹게 오르자 장관이 펼쳐진다.

미완성이지만 제법 모습을 갖춰가는 24호 송전철탑 뒤로 완성형 송전철탑의 장엄한 파노라마가 이어진다. 20km 이상의 송전철탑 행렬은 수평선에 아스라이 겹친다.

이곳은 '500kV HVDC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제1공구 건설 현장. 울진 군에서도 산속으로 한참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그나마 이곳은 차로 오를 수 있지만 1시간 이상을 걸어 올라가야 하는 현장도 있다고 오시흥 대리는 귀띔한다.



Transmission Line

HVDC



79개 마을 경과지 선정 100% 완료! 그 눈물과 땀의 드라마

‘500kV HVDC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동해안 울진에서 경기도 가평과 하남까지 총길이 280km, 첩탑 448개에 이르는 ‘국내 최장, 최대 규모’의 초고압 직류 송전망 (HVDC)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500kV HVDC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사업 과정은 한전인들의 눈물과 땀으로 한땀 한땀 일궈낸 그야말로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한 스토리였다. 2016년 주민 참여를 통해 입지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결성한 초창기부터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반대를 위해 무려 1천3백여 명이 모인 백두대간 집회에서의 첩탑 화형식, 삭발식은 시작에 불과했다. 천막농성, 송전탑 반대 국토 도보 순례 등 대규모의 극심한 반대 집회가 줄을 이었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장에 반대 위원회 주민 수백 명이 난입해 회의가 중단되고 직원들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지역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한전의 노력은 눈물겨웠다. 한전은 지역마다 빗으로 나눔심터를 마련하고 한전 직원이 마을에 상주하며 주민들과 좀 더 밀착된 현장소통을 이어나갔다. 주민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빵과 음료 등을 준비해 매일 한분 한분 찾아다니며 의견을 듣고 주말에도 경조사나 각종 마을행사를 찾아다니며 감성적 유대관계를 쌓았다.

마을 번영회장을 설득하기 위해 눈덮인 해발 1,560m의 가리왕산 정상을 오르기도 하고, 회가 먹고 싶다는 주민들의 요청에 봉화에서 울진까지 한 걸음에 달려가 회를 사다 드리는 등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의 연속이었다.

이밖에도 찾아가는 이발관, 찾아가는 사진관, 전기체험관 견학, 특산물 구매, 농번기 일손돕기, 희망·사랑·나눔콘서트 등 다각적인 지원활동으로 지

역사회에 다가섰다. 울진지역에 대형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달려가 경과지역 주민들과 산불진화 소방관들에게 각종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도움의 손길을 펼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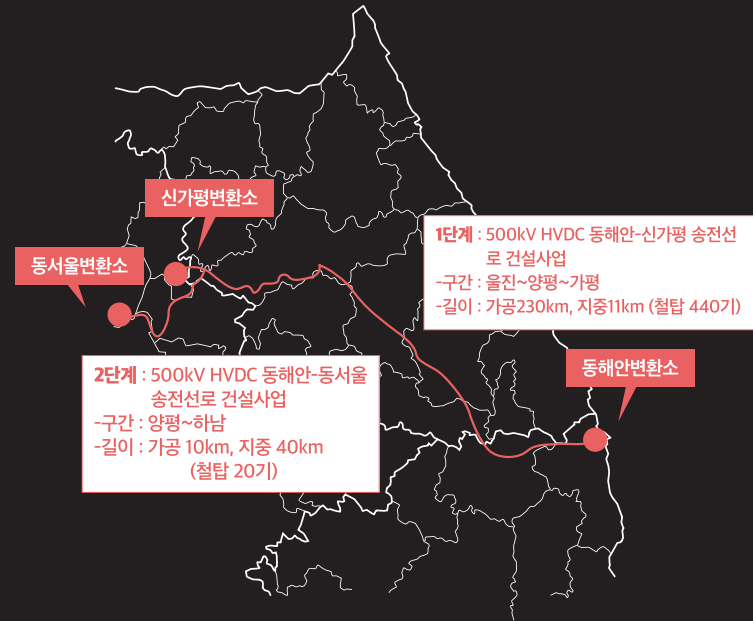
무수한 이야기를 품고 난관을 헤친 끝에 마침내 2025년 4월, 동해안-동서울 HVDC 송전선로를 통과하는 경상북도·강원도·경기도 79개 마을 전 구간에서 주민 합의가 100% 완료됐다. 경북 울진부터 경기도 하남에 이르는 국내 최장 동해안 수도권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1100회에 이르는 주민 설득 작업 끝에 중점인 경기 하남을 제외한 사업구간 내 마을 79곳에서 모두 동의를 받아냄으로써 제1장 1막을 완료했다.

500kV HVDC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사업, 국가경쟁력 좌우하는 국가 중요 프로젝트

신한울 1, 2호기 등 동해안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한 전력망을 구축하는 500kV HVDC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프로젝트다.

이곳에서 건설되는 ‘500kV HVDC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는 울진원전 등 동해안의 원전과 석탄화력에서 발전한 8GW의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하는 매우 중요한 전력인프라다. 8GW는 대형 원전 6기 규모의 발전력과 맞먹는다. 500kV HVDC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는 신한울 원전에서 출발해 1단계 중점인 신가평과 2단계 중점인 하남 동서울변환소까지 이어지는 전력망이다. 이 선로는 양평까지 와서 4GW는 신가평변환소, 4GW는 동서울변환소에서 교류로 변환돼 사용된다.

500kV HVDC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구간



고속도로 다 짓고 톨게이트 없어서 이용 못 한다?!

본 선로의 중착역인 동서울변환소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이 하남시의 반대에 부딪혀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동서울변환소 증설사업은 2024년 12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변환설비 증설사업 인허가 불허처분 취소결정’ 판결을 통해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확보했다. 하지만 하남시는 행정심판 이후 충분한 숙려기간을 가졌음에도 변환설비 증설사업의 인허가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전은 전력공급 시급성에 대한 절박함으로 지난 4월 16일부터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한전은 전력망 건설허가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을 통해 우리나라 전력망 확충사업이 지자체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정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았으며 이는 특정지역만의 문제를 넘어 국가 전력망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전력망 건설 지연이 계속되면, 동해안의 풍부하고 값싼 전력 대신 더 비싼 전기를 사용해야만 한다면 이로 인한 요금 인상 요인은 연간 3천억 원이나 되고 결국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 호소했다.

한전은 이를 고속도로 다 지어놓고 톨게이트 하나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례에 비유하며, 이로 인해 인공지능, 반도체 등 대한민국의 미래 첨단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흔들리며 국가경쟁력마저 추락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한전은 하남시가 건설 인허가 불허의 주요이유로 제기하는 전자파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는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와 같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 수준의 이야기라 일축하며, 전력망 확충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전력망특별법까지 제정한 시점에서 특정지역의 반대가 국가 전력망의 확충



을 가로막고 대한민국 전체의 손실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4월 25일 이현재 하남시장을 만나 끝장토론을 벌였지만 아직 해법이 나지 않은 상태다.

최종가압을 향한 도전은 계속된다!

이처럼 500kV HVDC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난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지만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한전HVDC건설본부 담당자들의 시선은 최종가압에 단단히 고정돼 있다.

1단계 2026년 10월, 2단계 2027년 12월 최종가압을 이룰 그리 머지않은 목표를 향해 이들은 우직하게 현장을 누비며 여전히 눈물과 땀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다.



전력 직접구매제도를 생각한다

Text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길은 전력으로 통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은 소득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 사용하는 모든 전자, 가전 기기, 인공지능 AI나 chatGPT, 데이터 센터, 전기차 등 모든 산업은 전력에 의존하고 있다. 전력도 일반 상품처럼 거래된다. 주로 한국전력이나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요즘 핫한 이슈인 ‘전력 직접구매제도’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때 전기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전력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되었다, 주로 김포공항이나 대형 병원 수준의 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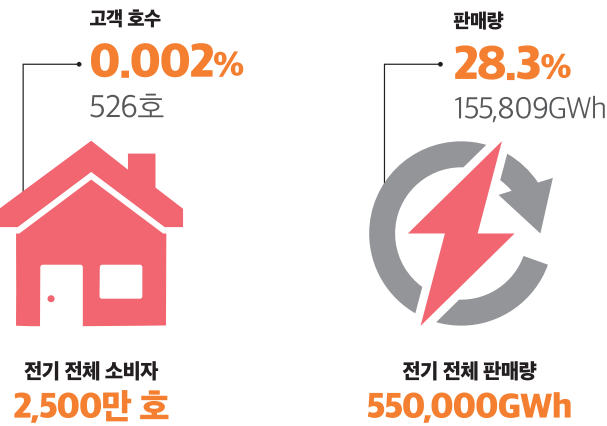
설비 3만kVA 이상의 전기사용자가 한전을 통하지 않고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는 제도다(『전기사업법』 제32조, 시행령 제20조). 직접 구매 참여가능 대상은 설비가 큰 대기업들이며, 전기사용자 수는 500여 호로 전체 소비자 2,500만 호의 0.002%이지만, 국가 전체 전기 사용량의 28.3%이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중요한 것은 판매사업자가 요금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연료비 등 비용의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이 제도가 설계됐다는 점이다. 이런 전제가 있게 된 이유는 시장원칙에 따른 요금체계 기반

직접구매제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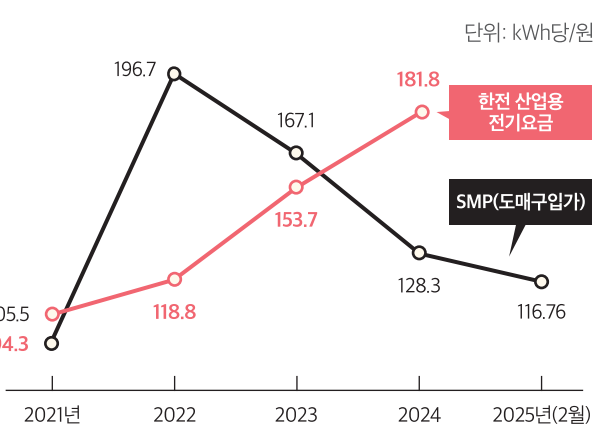
직접구매제도는 전기사용자가 한전을 통하지 않고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제도로, 수전설비용량 3만kVA 이상 전기사용자가 대상이다.



3만kW 이상 소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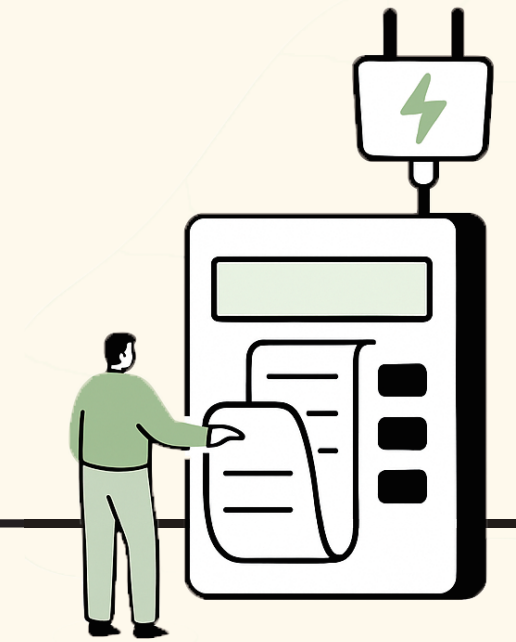


SMP 전력 도매가와 한전 산업용 전기요금



Direct Power Purchase

환경에서 전기 소비자가 도·소매간 전력 구입비용을 비교하여 구매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수의 판매사업자들이 서로 경쟁함으로써 부당하게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력시장 구조 개편이 중단되면서 오랫동안 정부의 요금 규제로 인해 연료 가격의 변동분을 적절하게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건전하고 공평한 전력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의 요금 규제로 인해서 한국전력은



오랫동안 낮은 전기 요금을 유지하여 왔다. 그 결과 산업, 농업, 가정, 건물 등 모든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력 직접구매제도는 제도가 존재하긴 했으나 산업체에서는 실제로 이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전이 수십 년 동안 원가 이하 전력 공급을 하면서 2024년 연결 기준으로 205조 원의 부채가 쌓이고,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교육지책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렸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3년간 7번, kWh당 최대 80원 올랐다. 가정용 주택·일반용(40.4원/kWh)의 두 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기요금 인상 민감기업 112개 대상으로 조사 결과에서 평균 전기요금 납부액은 2022년 약 481억 5,000만 원에서 2024년 약 656억 7,000만 원으로 36.4% 증가했다. 이와 같은 산업용 요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의 원가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개선된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직접구매제도가 성공하려면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다.

국내 직접구매제도 주요 개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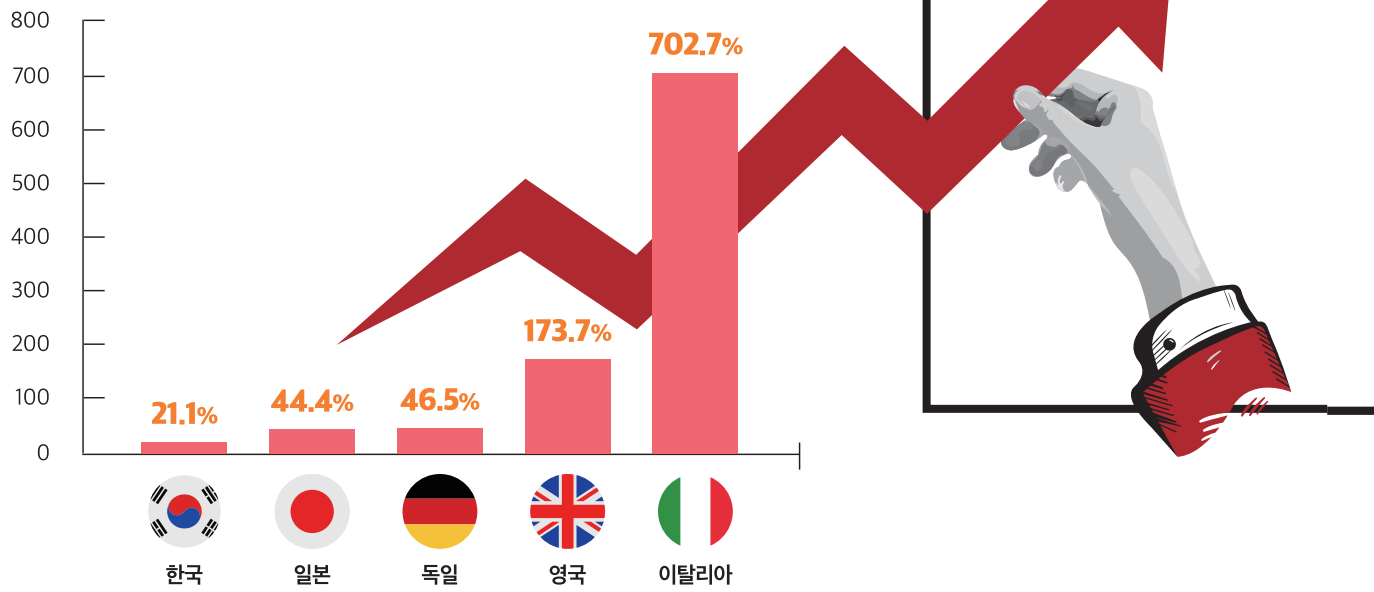
직접구매제도는 전기사용자인 기업이 한전이 아닌 전력거래소로부터 시장계통가격(SMP)에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인데 2025년 전기

위원회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직접구매 의무거래기간 확대 및 책임 강화라고 본다. 직접구매자는 3년의 의무 거래기간동안 직접구매 의무가 발생하며, 의무 위반 시 9년간 직접구매 재신청이 불가하고 거래소 회원에서 제명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재정보증 강화다. 직접구매자의 기업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재정보증을 의무화하고, 재정보증 규모를 40일에서 80일분으로 확대하였다. 세 번째는 전력구매 이외의 추가비용 공동부담 원칙의 신설이다. 직접구매자가, 전력량 정산금 외에 판매사업자 및 구역 전기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예컨대 신재생에너지 관련 RPS 비용) 등을 동등하게 부담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복지특례 할인비용 부담 규정의 신설인데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해 소요된 복지 특례 할인 비용을 직접구매자도 공평하게 분담하고 이를 판매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해외의 전력 직접구매제도

해외의 전력 직접구매제도는 소매시장이 자유화되고 판매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제를 운영하는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기 시 각국 전기요금 인상을 비교(2021~2022년)



최근 3개년 전기요금 인상 내역(2022~2024년)

단위: 원/kWh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누계
	4월	7월	10월	1월	5월	11월	10월	
산업용	6.9	5.0	13.9	13.1	8.0	9.6	16.1	72.6
일반용	6.9	5.0	9.7	13.1	8.0	-	-	42.7
주택용	6.9	5.0	7.4	13.1	8.0	-	-	40.4

싱가포르, 아일랜드, 스페인, 호주 등이다. 캘리포니아는 2001년 전력위기 시 판매사업자의 원가상승분 회수를 위해 고객의 직접구매 전환을 제한하고 '전력조달 비용' 요금을 신설하였다. 또 직접구매자에게 전력구매 계획 수립, 시장입찰 등을 수행하도록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스페인은 직접구매자가 취약계층 보호나 에너지효율 기금 등 의무분담이 면제되어 형평성 이슈로 규제기관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용량 소비자의 직접구매제도가 존재하더라도 활용은 제한적인데 보증금·IT시스템 비용 부담이 큰 것도 이유다. 직접 거래제도의 핵심은 요금제도다. 해외 주요 국가들의 전기요금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영국은 발전·판매부문이 자유화되어 두 개를 겸업하는

6개사가 판매의 73%를 점유한다. 가스, 전력 시장위원회가 일반 가정용 판매 전력에 한해 요금 상한제를 도입 중이지만 이외 소비자는 자유 요금제를 운영 중이다. 독일은 4대 전력회사 중심으로 소규모 시영과 민영회사들이 운영 중이다. 다수의 판매회사가 복수의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어 판매 사업자를 교체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2007년 판매시장 전면 개방 후 요금 규제가 전면 폐지되었다. 현재는 발전원별 요금 고정 옵션에 따른 다양한 자유 요금제다. 프랑스에서는 2007년 소매시장을 전면 개방하였으나, EDF사가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에너지 규제위원회에서 주택용 등 소용량 고객에 한정적으로 요금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2025

년 일몰 후 전면 자유 요금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일본은 2016년 발전 및 소매시장 전면 자유화로 10대 전력사를 포함한 다수 판매사업자들의 출현과 모든 소비자가 다양한 자유 요금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50kW 미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규제 요금을 유지 중이며, 판매사업자는 초고압 및 고압 소비자 대상으로 맞춤형 요금제의 설계가 가능하다.

직접구매제도의 고려 사항

직접구매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은 전기요금의 현실화이다. 코로나 19 시기가 대표적인데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였지만 국내 전기요금은 원가 인상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2021년에서 2022년 동안 한국은 산업용 전기요금만 21.1% 인상하였지만 이탈리아는 702.7%, 영국은 173.7%, 일본은 44.1% 인상하였다. 이렇게 낮게 인상한 결과 한전은 2024년 말까지 34.7조 원 누적적자와 200조 원 이상의 부채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적자는 투자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된다. 2033년까지 원자력 발전과 양수발전소, 신재생에너지 등을 위한 투자가 17조 5,069억 원 남아있고, 2024년 투자비 집행률은 91%로 지연된 투자도 진행해야 한다.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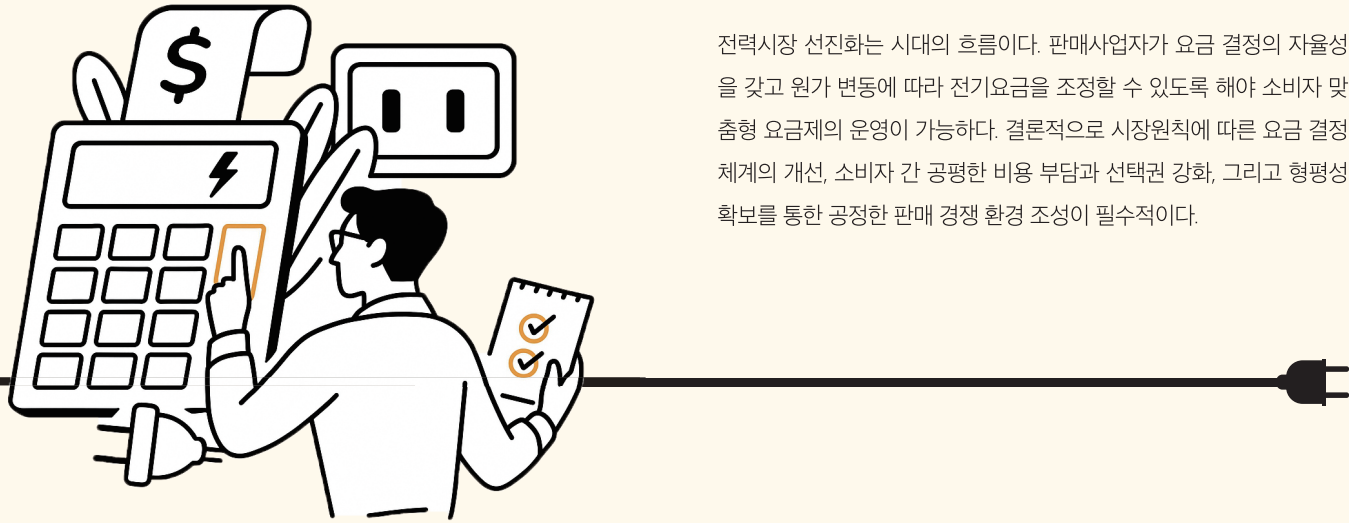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2038년까지 350조 원을 투자해야 하며, 송·배전망에만 100조 원의 투자를 예상한다. 2024년 투자집행 실적에서도 송·배전망 건설에 5조 4,633억 원, 유지보수 2조 5,174억 원 등 약 8조 원을 사용했다. 전체 투자금액의 전체 47%에 해당한다. 이는 결국 국에 한전의 주가에 영향을 줄 것이다. 두 번째는 한전의 적자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나가면 남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제도 활용이 불가능한 소비자들의 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 소비자 형평성의 문제가 되므로 일반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가격 변동성을 고려해야 한다. 단기적인 이익만 본다면 위험한 리스크에 처할 수 있다. kWh당 전력 도매 판매단가는 하루에도 70원에서 150원으로 변화가 심하다. 언제, 얼마나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변동성이 크지만 한전을 통해서 변동성을 줄여 왔다. 직접구매는 가격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없다. 네 번째는 기존 제도와의 상충성이다. 2024년에 정부는 전력시장 가격 결정에 판매사업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양방향 입찰(수요 입찰제)을 고려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시간대별 전력수요에 따라 소비자들이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전력시장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접구매제도 도입 후에 양방향 입찰 제도에 기업이 들어올지 의문이다.

결론과 요약

전력시장 선진화는 시대의 흐름이다. 판매사업자가 요금 결정의 자율성을 갖고 원가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소비자 맞춤형 요금제의 운영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시장원칙에 따른 요금 결정 체계의 개선, 소비자 간 공평한 비용 부담과 선택권 강화, 그리고 형평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판매 경쟁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김부미, '전력직접구매제' 개정... 전기 다소비 기업들 '탈한전' 본격화?, 전기신문, 2025. 03. 31.
김성화, 정부는 "한국전력 빼고 '전기' 거래해라" 시장은 "수익성 아직 더 개선해야 한다", 중소기업신문, 2025. 04. 02.
김정인, 전력 직접구매 제도, 관건은 요금제 개선과 형평성, 중앙일보 비즈니스컬럼, 2025. 04. 21.
서일원, "전기요금 너무 비싸"... 직접 구매 검토하는 기업들, 조선비즈, 2025. 04. 03.
윤대원, 논란의 산업용 전력 직접구매제도(하) 제도 핵심은 결국 '형평성', 전기신문, 2025. 04. 06.
윤준식, 직접구매·자기발전하면 최대 40% 절약... 전기요금 아끼려 脫한전 옵션 준비하는 기업들, 국민일보, 2024. 11. 28.
윤혁준, 국내 전력시장의 직접구매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 2021 vol.20, no.2, pp.207-242, 전력거래소, 직접구매 제도 정비를 위한 규칙개정(안), 2025. 01.
최호, 한전없이 전기 사는 '전력직접구매' 허용... 대형 전기 소비자 '직구' 시작, 전기신문, 2025. 03. 28.
최호, 脫한전 전력직접구매, 요금혁신 VS 시장편식 논란, 전자신문, 2025. 03. 30.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한 수급불일치, 계통불안정 유발해

봄은 햇빛이 유독 강하여 재생에너지 가운데 발전량 비중이 높은 태양광 발전이 무탄소 청정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계절이다. 지구 환경을 생각하면 반가운 소식이지만, 전력계통을 고려하면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우리가 공급하는 전기는 언제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하는데, 기상 여건이 좋으면 태양광이나 풍력은 전력수요가 낮은 휴일에도 많은 전기를 생산하여 자칫 수요 대비 공급과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호남지역은 송전용량에 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아 국지적인 전압불안정이나 과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2024년 봄·가을철 경부하기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공급과다로 인한 크고 작은 계통불안정 상황이 십여 차례나 발생하였다.

출력제어, 봄 가을철 계통불안정 해소를 위한 대책

산업부, 한전과 한국전력거래소는 봄, 가을철 예기치 못한 수급 불일치로 인한 계통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경부하기 계통안정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2025년 봄철 경부하기 계통 안정화 대책으로 발전량 감축을 위한 석탄발전단지 최소 운영, 원전 정비일정 조정, 수요량 증대를 위한 태양광 ESS 충전시간 조정, 양수자원 활용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의 발생으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시행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계통운영자인 한국전력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행정적인 조치로 전기사업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유

지기준과 한전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근거한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2015년에 제주에서 시작되었으며, 육지는 2023년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4월말까지 20회를 시행하여 2024년 총 15회의 이행실적과 비교하면 출력제어가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수급불균형, 154kV 송전제약, 한빛원전 배후 송전제약, 호남-충청 용통선로 송전제약의 사유로 시행하고 있으며, 제어사유에 따라서 출력제어 대상지역을 운영한다. 광주전남본부는 수급불균형 및 송전제약 사유로 인한 출력제어 대상지역에 모두 포함되어 최다 출력제어를 시행하고 있다.

출력제어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한전의 노력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수요 예측 및 전력계통 상황을 반영해 오후 6시 발전계획을 수립,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량을 산정하여 한전에 통지하면 본사 계통기술실과 배전계획처는 출력제어 사유와 제어량을 확인하고 사업소별 대상발전소를 선정하여 사업소에 통보한다. 사업소 상황실은 배분된 출력제어 대상을 확인하여 늦은 시간까지 발전사업자에게 SMS 또는 유선으로 출력제어 시행 예정임을 안내하고, 당일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의 출력제어 또는 차단을 시행하며, 출력제어 시행 종료 전후 발전사업자에게 4차례 추가 안내를 시행한다. 이 과정에서 ‘출력제어 거부’, ‘보상요구’ 등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봄철 계통안정화를 위한 조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봄날의 한전은 분주하다. 특히나 요즘은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증가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전사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한전인들을 이토록 분주하게 하는 출력제어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Text 박성길 계통기술실 재생대책담당 차장

Renewable

energy

curtailment

출력제어 업무가 일상화 됨에 따라 사업소의 출력제어 업무 경감을 위해 본사 관련부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대상 선정과 일괄 제어를 위한 출력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광주전남본부에 시범적용 중이며, 6월 이후 전 사업소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둘째, 출력제어 발전사업자 안내 업무의 효율 향상을 위하여 영배정보시스템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안내시스템을 보완 개발 중이다.** **셋째, 챗봇을 활용하여 발전사업자의 민원을 응대하고, 대외 홍보활동을 확대하여 발전사업자의 출력제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고자 한다.** 넷째, 출력제어 복구를 위한 개폐기 투입 시 고객동의 안내를 자동전화 시스템(ACS)으로 대체하여 상황실 근무자의 업무피로도를 완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사-사업소간 간담회, 워크숍 등을 시행하여 사업소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향후 동기조상기, ESS 등 계통안정화 설비 확충과, 태양광 인버터 성능개선 추진 등 송전제약 요인에 의한 출력제어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를 감안하면 수급불균형에 의한 출력제어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력제어를 수행하는 현장의 소리

“올해 우리 본부는 전년에 비해 출력제어 횟수가 급증하여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과거 출력제어를 빈번히 시행했지만,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 이후 상당부분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육지 지역도 유사한 제도나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주전남본부 배전연계부
김지관 차장

“재생에너지 증가 및 출력제어 추세를 본다면 앞으로 출력제어는 일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해야될 일이라면 발전사업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북본부 계통운영부
오요셉 대리

“출력제어 업무경감을 위해서는 전력거래소의 협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주말 출력제어 정보를 좀 더 신속하게 알려주면 사업소 출력제어 상황실 근무자가 효율적으로 주말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세종충남본부계통운영부
박진성 대리

“출력제어 시행 전일 한국전력거래소는 수요예측을 해서 출력제어량을 산정하는데, 갑작스럽게 당초 계획외 추가적인 출력제어량을 요청해서 발전사업자의 민원대응이나 출력제어 상황실 근무인력 추가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요예측 정확도가 높아진다면 사업소는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본부 배전연계부
한기헌 대리

미래를 이끄는 힘(POWER), New 「KEPCO 인재상」 재정립

- 미래 글로벌 에너지를 선도하는 ‘P.O.W.E.R players’

Text 탁경민 인사처 인재육성부 차장

최근 전력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급격한 변화, 전력수요 급증과 전력계통의 불안정성 가중 등은 기존 한전의 역할을 넘어 에너지 신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지향점을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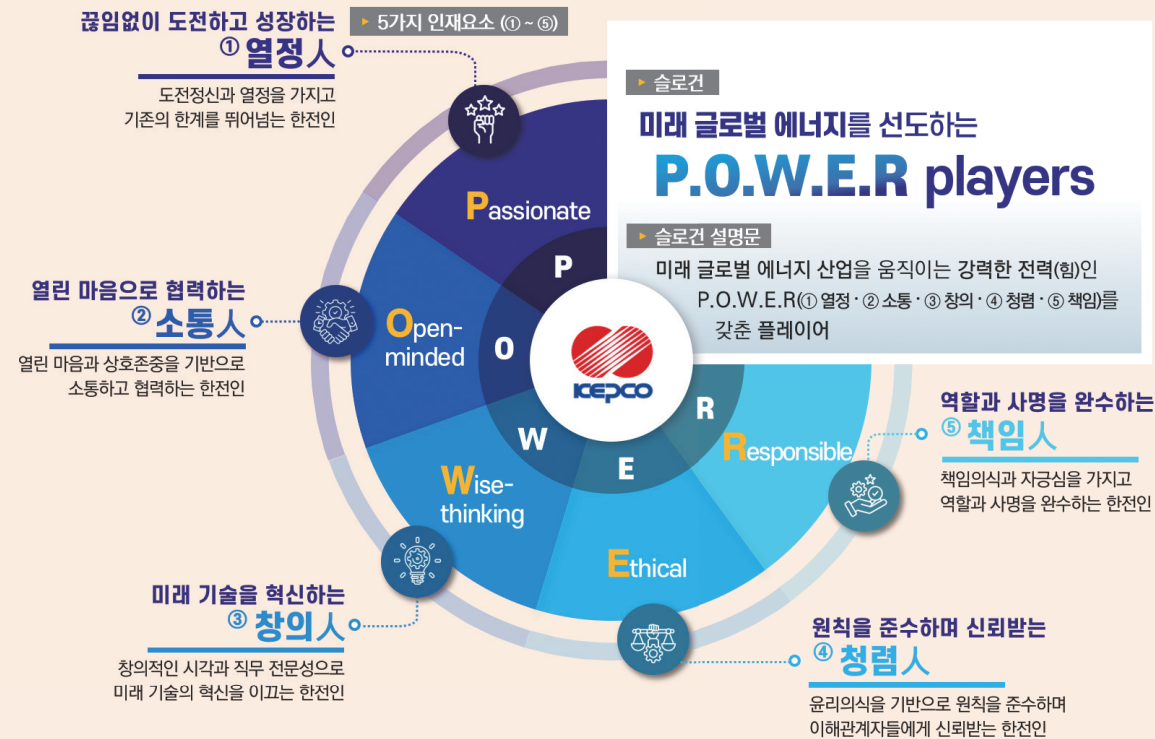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조직의 가치관과 문화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기존과 다른 관점을 가진 미래 세대가 조직 내 다수(전 구성원의 53%)를 이루면서 공감 기반의 소통, 자율성과 유연성 등의 가치가 확산되고 있으며, AI·디지털 기술의 가속화는 일하는 방식과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우리 회사는 재무위기 극복의 구심점이자 지속성장의 원동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운 비전인 「Global Energy & Solution Leader」와 5대 핵심가치(도전혁신, 고객감동, 미래성장, 기술선도, 상생소통)를 수립하여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이자 한전의 미래를 이끄는 힘은 ‘사람’ 즉, ‘인재’이다.

급변하는 환경과 조직문화에 부합되는 새로운 행동 기준과 일하는 방식이 절실한 지금,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재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대내외 환경 및 타사 사례를 분석하고, 사내 설문조사와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인재상을 새롭게 재정립하였다.

새로운 인재상은 슬로건과 설명문, 5가지 인재요소로 구성된다. 슬로건은 ‘미래 글로벌 에너지를 선도하는 P.O.W.E.R players’로, 미래 글로벌 에너지 산업을 움직이는 강력한 전력(힘)인 P.O.W.E.R을 갖춘 플레이어를 의미한다. P.O.W.E.R는 각각 열정(Passionate), 소통(Open-minded), 창의(Wise-thinking), 청렴(Ethical), 책임(Responsible)의 5가지 인재요소를 나타내며, 이는 우리회사의 업(業)이자 정체성인 ‘POWER’와 연계되어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인재상으로 완성되었다.



P.O.W.E.R

players

①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는 열정인 (Passionate)

열정인은 변화와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적극적으로 행하여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한전인을 의미한다.

②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는 소통인 (Open-minded)

소통인은 열린 마음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수용하며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결과를 함께 만드는 한전인을 의미한다.

③ 미래 기술을 혁신하는 창의인 (Wise-thinking)

창의인은 기존의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창의적 사고와 수준높은 직무 전문성을 갖추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미래 에너지 기술의 혁신을 이끄는 한전인을 의미한다.

④ 원칙을 준수하며 신뢰받는 청렴인 (Ethical)

청렴인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을 기반으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정직하고 바른 행동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받는 한전인을 의미한다.

⑤ 역할과 사명을 완수하는 책임인 (Responsible)

책임인은 자긍심을 가지고 본인의 역할과 사명을 성실히 완수하고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해내며 결과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한전인을 의미한다.

새로운 인재상은 신입직원 채용 및 교육, 포상 평가기준 등 인사 분야뿐만 아니라, 건전한 조직문화의 확산, 일하는 방식의 혁신 등 조직 전반에 걸쳐 활용되어 구성원의 성장뿐만 아니라 조직 내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제 우리는 인재상을 단순히 이상적인 구성원을 묘사하는 문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매일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자 함께 만들어갈 실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표 국민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넘어 글로벌 1위 유틸리티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력(POWER)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드는 인재! 그 중심이 바로 「P.O.W.E.R players」이다.

한전 에너지효율 담당자가 알려주는 여름철 대표가전별 에너지절약 꿀팁!

에어컨을 켜야 할지, 선풍기로 버텨볼지 고민되는 시기이다. 그 이유는 전기요금에 신경 쓰이니까...
'이제는 전기 좀 아껴 써야지'라고 마음먹어도, 에너지절약이라고 하면 뭔가 어렵고 거창한 일이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래서 준비했다. 한전 에너지효율 담당자가 직접 알려주는 여름철 대표가전별 '에너지절약 무작정 따라하기!' 궁금하면 따라와~

Text 마에문 수요효율처 효율사업실 차장

#에어컨 편

에어컨은 껐다 켜다 하는 게 유리할까?

에어컨은 계속 켜놓는 것이 유리할까? 껐다 켜다 하는 게 유리할까?
딱 정리해드리겠다. 인버터형 에어컨은 설정온도를 유지한 채 계속 가동하고, 정속형 에어컨은 설정온도에 도달하면 껐다가 더워지면 다시 켜야 한다. 이를 구분하려면 에어컨 옆이나 아래쪽에 부착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를 살펴보자. 소비전력(또는 정격능력)이 세분되어 있으면 인버터형, 별도 구분이 없으면 정속형이다.
에어컨의 냉방효율을 높이려면 에어컨 필터청소는 필수다. 에어컨 필터 먼지는 냉방효율을 낮추므로 필터청소로 냉방효율도 높이고 전기요금도 절약하자. 바람 방향은 위쪽으로 향하도록 에어컨 날개를 조정하자.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덥다고 사람 쪽으로 바람을 향하게 하지 말고 위쪽으로 해두자.
그럼 여름철 에어컨 설정온도는 몇 도가 좋을까? 여름철 실내 적정 냉방 온도는 26℃이다. 에어컨을 처음 가동할 때에는 희망온도를 낮게 설정하더라도 어느 정도 실내 온도가 낮아지면 희망온도를 26℃로 설정해두자. 그리고 에어컨과 선풍기를 동시에 사용하면 좋다. 선풍기는 에어컨에서 나오는 냉기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더욱 빨리 시원해지고 전기소모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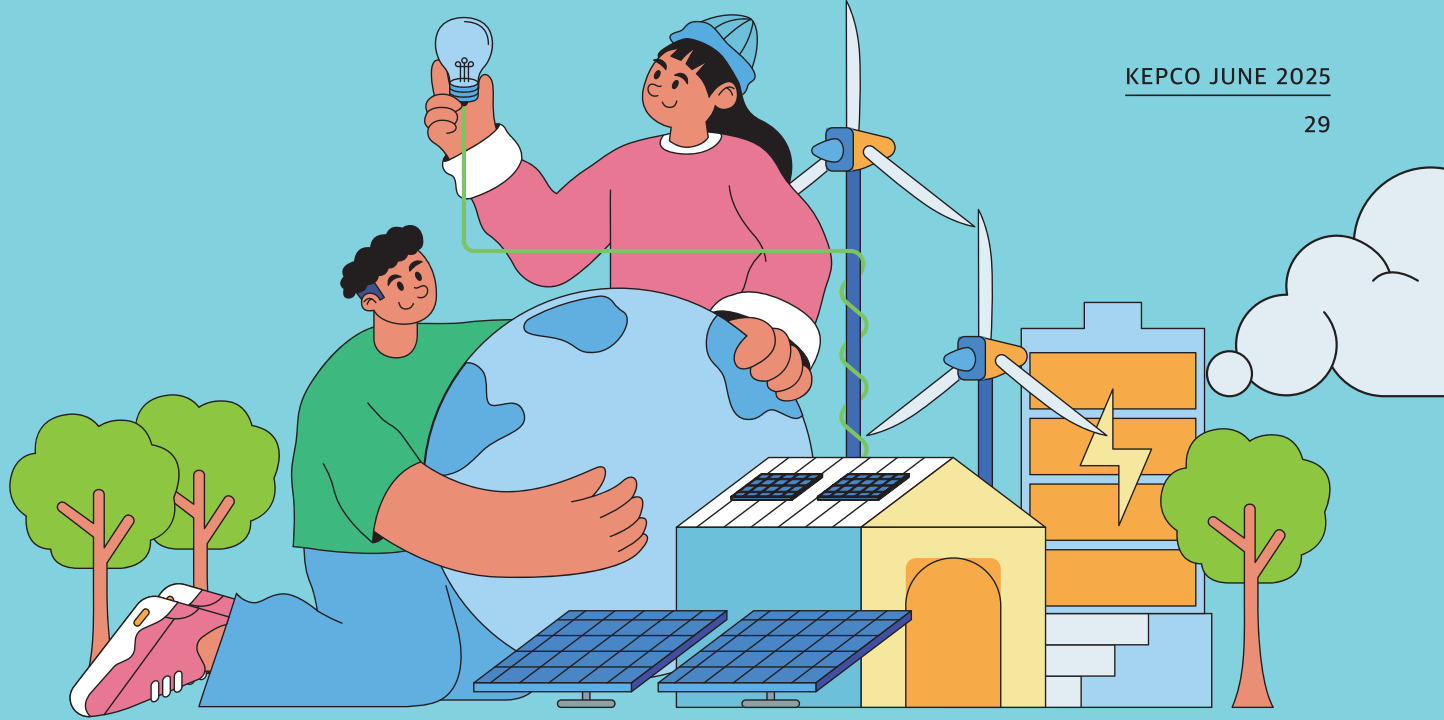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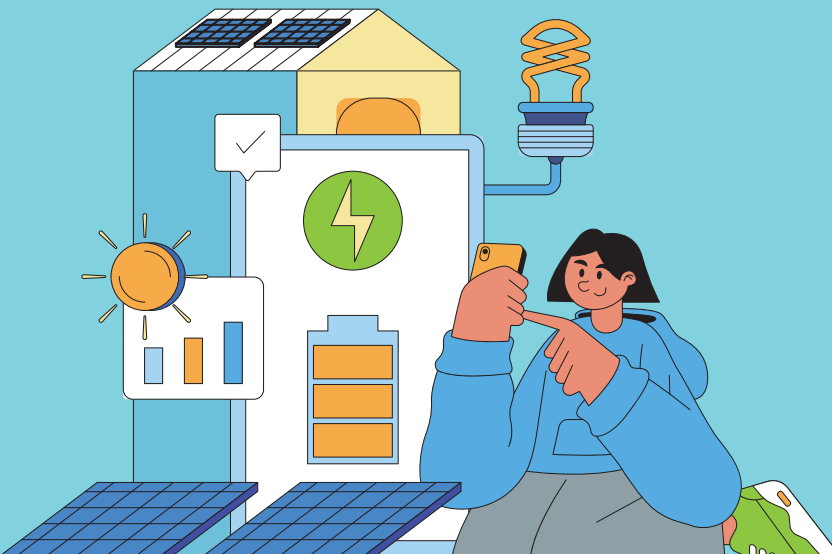
인버터형		정속형	
정격전력	220 V~, 60 Hz	정격능력	냉방 : 2300 W
정격능력(정격/종전/최소)	6500/4600/2000 W	소비전력	냉방 : 50 W
소비전력(정격/종전/최소)	1750/900/380 W		
운전전류(정격/종전/최소)	8.5/5.0/2.5 A		
에너지소비효율	8.90 W/W		

설정온도 유지, 계속 가동 설정온도 도달 시 전원 끄기

#냉장고 편

냉장실과 냉동실! 꽉꽉 채워 넣어도 될까?

정답은 냉장실은 60%만 채우고, 냉동실은 90% 이상 채워야 한다. 냉장실은 찬 공기가 순환할 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60%만 채우고, 냉동실은 냉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90% 이상 채워서 사용해야 한다.
냉장고 문을 연 채 무엇을 꺼낼지 고민하는 습관은 금물! 냉장고는 문을 6초 정도만 열어놓아도 온도를 다시 낮추는 데 30분 정도가 걸린다.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냉장고에서 꺼낼 내용물을 먼저 생각해두자.
반찬을 투명용기에 담거나 스티커를 부착해 꺼낼 식품들을 한눈에 보이게 정리해 냉장고 문이 열려있는 시간을 최소화하자.
냉장고를 설치할 때는 벽에서 5cm가량 간격을 두고 설치하자. 냉장고는 주변 온도에 따라서도 소비 전력량이 3배 가까이 늘어난다. 그러므로 벽에 딱 붙여 설치하는 것보다는 주위에 간격을 두고 설치하는 것이 좋다. 설치한 냉장고 후면은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기밥솥 편

전기밥솥 보온기능이 전기 먹는 하마?!

전기밥솥의 보온기능은 전력소모가 많다는 사실! 12시간 보온기능을 사용하면 1회 취사보다 더 많은 전력이 소모된다. 밥은 먹을 만큼만 짓고, 남은 밥은 전력소모가 많은 보온기능 대신 냉동 전용용기에 소분해 보관하면 전기밥솥에 쓰이는 전력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전기밥솥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인하자!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전기밥솥을 선택하면 에너지절약에 도움이 된다. 전기밥솥뿐 아니라 모든 가전제품은 꼭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것으로 구매하자!

12시간 보온 시	1시간 보온 시	1회 취사 시
223.68Wh 전력소모	18.64Wh 전력소모	190.58Wh 전력소모

#대기전력 편

대기전력? 이 생소한 용어는 뭐지?

어렵지 않으니 긴장하지 마시라. 대기전력은 전자제품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전기코드를 콘센트에 꽂아두기만 해도 소모되는 전력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대부분 전자제품에는 대기전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대기전력만 줄여도 줄줄 새는 전기요금을 막을 수 있다.
대기전력이 있는 제품인지 여부는 전원버튼을 보면 확인 가능하다. 전원버튼이 우측 모양이라면 대기전력이 있는 제품으로 전원버튼이 꺼져 있어도 전력이 소비되니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두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알려진 에너지절약 꿀팁을 실천했다면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에 가입하여 절약한 전력 사용량만큼 전기요금 할인 혜택도 받아보자. 신청은 간단하니 왼쪽 QR 코드를 스캔해서 당장 가입해보자.

과즙 가득 상큼한 과일로 비타민 충전 100% 전력망입지처

Text 허승희 Photo 황지현



송변전 건설사업 수난 시대

송변전 건설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여전히 따뜻하지 않다. 원활한 전기 공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내 집 앞은 싫다’라고 주장하는 탓에 송변전 건설사업이 계획한 것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잦았다. 과거 밀양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사례가 대표적인데, 지역 갈등과 주민 민원이 발생한 뒤 입지 단계에서부터 송전선로가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등 혼란을 겪으며 당초 목표했던 준공일보다 10년 넘게 지연되기도 했다. 심지어 요즘에는 화가 난 주민들이 한전의 모든 업무 단계에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정 다툼으로 끌고 가기도 한다. 이렇게 재판을 시작하게 되면 한전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주민을 앞세운 지자체가 관련 허가나 승인을 거부하는 등 송변전 건설사업에서는 다양한 제약이 발생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전력망 건설 입지업무 난조 속에서 한전은 국가전력망의 적기 건설을 이룩하기 위해 각 건설본부를 대표해 ‘전력망입지처’라는 입지 전문 조직을 신설하게 되었다. 사업별로 발생 소지가 있는 건설 지연 원인을 조속히 분석한 뒤 제거하고 이후의 사업에서 입지업무 개선 등을 통한 건설 지연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탄생한 것이다.

전력망입지처 직원들이 해맑게 미소 짓고 있다.



전기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의 삶에서 전기는 너무나도 중요해졌다. 점점 더 중요해질 전력망 확충 사업을 위해 새롭게 신설된 전력망입지처를 찾아 상큼한 과일로 비타민을 충전했다.

국가전력망 적기 건설을 도모다

지난 2월 10일 발족한 전력망입지처의 업무는 그간 송변전 건설사업을 진행할 때 본사 송변전건설단이나 각 건설본부에서 계속 기존에 수행해 오던 업무다. 지난해까지 본사에는 송변전건설단 내에서 공사 부분과 다 소 성격이 다른 갈등과 보상 조직만 별도로 운영하다가 이번 기회에 전력망입지처를 신설하면서 온전한 입지 단계 조직을 구성하게 되었다. 즉, 기존 송변전건설단의 2개 부서를 흡수하고 새로운 입지부서 2개를 추가하여 입지 전담 조직이 된 것이다.

전력망입지처는 입지제도부, 입지선정부, 갈등민원정책부, 보상정책실로 나뉜다. 이들은 국가전력망을 제때 확충하기 위해 마련된 한전의 ‘어벤저스’ 같은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전력망입지처는 송전선로나 변전소 건설 시 입지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제도 지원 및 시스템 구축 업무를 맡고 있다. 건설 지연이 발생할 경우, 법률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지연 요소를 조기에 제거해 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건설본부와 협업한다. 또 입지 선정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갈등과 민원 등을 접수한 뒤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으로 전력망 확충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향상시키는 등 보다 효과적으로 갈등을 중재하고 민원을 관리하는 것이다.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갈등민원정책부는 ‘2030 에너지 서포터즈’를 선발해 지역과 미래세대의 소통으로 순조로운 합의를 이끌었다. 전력설비 관련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인 ‘찾아가는 소통첨터’를 시행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갈등과 민원 해결을 위해 달리고 있다. 보상정책실은 ‘보상도 전략이다’라는 문장을 새기며 최소보상금, 협의장려금 등 다양한 보상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하는 등 금전적 보상뿐 아니

“전력망입지처는
각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지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다.”

라 제도 정비 및 개선안 마련 등으로 한전의 신뢰도 제고와 위상을 높이는 데 열과 성을 다하는 중이다. 결국 전력망입지처는 각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지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다. 이처럼 전력망 건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사적 공감대 형성 및 직군과 지역을 불문하고 기본적인 건설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전력망입지처. 신설된 지는 얼마되지 않았지만 건설 입지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 수립은 물론, 과감한 혁신과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여 일방적 개선이 아닌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



마음 담긴 과일로 기력 회복!

‘국가전력망 적기 건설’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기에 이들의 하루는 더욱 분주하다. 수많은 민원과 관련 제도 확인, 적절한 보상 연구 등으로 24시간이 부족한 전력망입지처 직원들을 위해 안지흠 입지제도부 차장이 비타민이 가득한 과일 도시락을 신청했다. “다들 바쁜데 간식이라도 먹으면서 힘내면 좋잖아요. 영양제로 부족한 비타민을 챙겨 먹는 것보다 싱싱한 과일로 섭취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어깨를 으쓱하며 두둑이 쌓인 과일 도시락을 톡톡 치며 웃어 보이는 안지흠 차장이었다. 짬을 내서 과일 도시락을 챙긴 직원들은 짧지만, 과즙만큼 달콤한 휴식 시간을 즐겼다. 웃으며 나누는 잠깐의 대화는 왜 이토록 즐거운 건지. 이런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각자의 본분을 다하러 떠났다. 이날 먹은 과일보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위로와 마주 보며 나누는 대화가 이들의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서로의 자양강장제가 되어 주며 국가전력망 확충을 향해 나아갈 이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자.

Thanks
For
Present

선물신청자



안지흠 전력망입지처 입지제도부 차장

새롭게 생긴 처인 만큼 정신도 없고 많이 바쁜 시기인데요. 직원들과 같이 상큼한 과일로 비타민을 충전하니 활력이 도네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서로에게 기대어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전력망입지처가 되길 바랍니다.

Trivium

트리비움 이용 안내

주소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2길 175-4

운영시간 11:00~17:00

휴관 매주 목요일

이용요금 29,000~99,000원

문의 031-665-0905



바로가기

트리비스타

실외로 이어지는 트리비스타는 트리비움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플레یس다. 야외 테이블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며 순한 바람을 만끽하기 좋다.

무해한 나의 휴식처 트리비움

챗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서,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무해한 공간이 필요할 때, 어디에 기대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마음이 아플 때 찾아가면 좋을 장소가 있다. 평택에 자리한 트리비움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고요하고 무해한 휴식을 경험할 수 있는 아늑한 쉼터다.

Text 채정비 사진제공 트리비움

자연에 머무는 곳

경기도 평택의 풀이 우거진 숲속, 조용한 마을을 지나면 로마의 웅장하고 섬세한 건축물이 떠오르는 공간 ‘트리비움’이 나타난다. 트리비움은 라틴어로 ‘세 가지(트리)’와 ‘배움(비움)’을 뜻하며, 하늘, 산, 물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에, 비우는 공간이라는 중의적인 메시지를 더했다. 이곳의 주인은 조경건축가와 아로마테라피스트 부부다. 이들이 살아온 길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트리비움은 아름다운 풍경을 넘어 자아를 탐색하고 영감을 얻는 공간이 되기를 바랐던 소망을 담았다.

이곳에 들어서면 도시에서의 복잡한 소란이 단숨에 잊혀지고, 무해한 자연과의 조우가 시작된다. 공간 구석구석, 가구 하나하나가 튀는 구석 없이 정확하게 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자연의 소리가 귓가에 조용히 스며든다. 무심하게, 하지만 존재감 있게 배치된 오브제들은 트리비움이 이야기하는 비움의 가치를 생각하게 만든다. 번잡한 도시에서는 만나 볼 수 없는, 무해하지만 강한 침묵을 견디는 공간이다.



자극 없이 감각을 깨우는 공간

트리비스타는 중첩된 산과 저수지가 어우러진 탁 트인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트리비움의 시그니처 공간이다. 창, 테이블, 의자 여태 실내에서만 자연을 구경했다면 이 공간에서는 실외로 나가 조금 더 가까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화려한 장식물도, 소품도 없이 고요한 풍경을 보여 주는 공간에서 낮에는 숲명, 하늘명, 저녁에는 달명을 하기도 좋고, 비가 오는 날에는 비명을 하기도 제격이다. 트리비스타를 지나면 트리비저블 시어터를 만나 볼 수 있다. 이곳은 4면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하늘과 숲을 집중해서 감상하게 되며, 주위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자연의 소리와 바람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루프탑이다.

외부의 소음을 잊다

트리비움은 자극적이지 않다. 바라보는 모든 곳에서 숲과 물이 있는 수공간을 즐길 수 있으며, 소음의 침입이 적은 평화로움을 갖췄다. 1층으로 들어서면 커다란 통창 너머로 울창한 숲과 저수지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곳 트리비움 홀은 요가와 명상이 가능한 곳으로, 좌식 의자에 앉아 자연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붙이거나, 새소리를 들으며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즐긴 후 곳곳에 위치한 도자기 작품이나 회화 작품을 관람하고 마음을 비워 내기 좋다. 테라스에 있는 네모난 수조에 물을 가득 채워 넣었다. 햇빛이 들어오면 그 물 위로 빛이 어른거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벽에 반사광을 투영시키며 새로운 풍경을 자아내기도 한다.

티 라운지는 트리비움을 찾은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안에 위치했다. 트리비움 홀이 정면의 숲과 저수지를 바라보게 만든다면, 티 라운지가 자리한 2층은 정면의 풍경뿐만 아니라 가지각색의 하늘이 보이게끔 와플식 구성으로 디자인됐다. 계절, 날씨, 시간에 따라 다르게 흐르는 하늘을 바라본 뒤 홀로,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들과 티 라운지에서 느긋한 시간을 누려 보자. 차, 커피, 무알콜 와인은 이 무해하고 아름다운 휴식을 온전히 즐기기에 완벽하다. 커피는 조용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머신 없이 콜드브루로 제공하고 있다.

트리비움 홀

트리비움 홀은 요가, 명상, 아로마테라피 등 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수압이 없을 때는 자연을 바라보며 고요하게 사색하거나, 평온한 속면을 취하기 치유의 공간이 된다.



트리비저블 시어터

휴식을 유발하는 다양한 연주회, 연극 등 트리비움과 어울리는 여러 문화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무해력’ 충전하는 6월의 문화 콘텐츠

적당한 온도와 살갗을 스치는 바람을 느끼며 걸어 보는 6월의 거리는 유독 청량하다. 우리는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 아주 잠깐 즐길 수 있는 이 날씨를 누리지 않을 수 없다. 산뜻한 걸음으로 다녀오면 좋을 전시를 소개한다.

Text 허승희 Photo 황지현



Little Beauty 2008 ©Anthony Browne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우리 마음 한편의 이야기

어린 시절의 기억은 한 사람의 삶에 생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까지도 생각하게 만드는 동화 작가 앤서니 브라운은 한 인터뷰에서 작품 활동에 어린 시절 이야기가 많이 들어 있다고 밝힌 것도 그 때문이다. 그의 어린 시절의 경험들과 풍부한 상상력이 만나 완성된 작품들은 전 세계 어린이들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런 덕분에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세계적인 동화 작가로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앤서니 브라운의 작품은 주로 가족, 사랑, 우정 등 따뜻한 주제를 다룬다. 이야기 속의 인물은 동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

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어른들은 텍스트 속에 숨겨진 의미로 깊은 감동을 전한다. 그의 작품 중 첫 케이트 그린어웨이상(Kate Greenaway Medal)의 영광을 누리게 만들어 준 그림책 『고릴라』는 바쁜 아버지와 딸 ‘한나’의 이야기인데, 성인이 되어서 책을 읽게 된 독자들이 눈물을 글썽였다는 감상평이 많은 것도 다 그런 이유다. 이렇듯 사람들의 솔직한 감정을 이끄는 앤서니 브라운의 작품은 우리 마음 한편에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만 같다. 그리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 이야기는 분명히 힘을 갖고 있을 테다. 그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무해력’이라는 힘.



빛바래지 않은 동심

앤서니 브라운의 작품을 보면 어느 동화책에 비해 삽화에 등장하는 동물이나 인물의 모습이 아주 세밀하게 표현된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작품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고릴라를 예로 들자면 털의 가닥이나 주름이 놀랍도록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러한 삽화의 특징은 그가 평소에 말하는 ‘관찰’의 중요성을 그대로 나타낸다. 작가가 관찰의 중요성을 자주 언급하는 만큼 전시를 관람할 때도 작품을 요목조목 뜯어서 잘 관찰하면 더욱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자그맣고 커다란 고릴라』 등 미공개 최신작 원화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미공개 원화를 감상하며 그의 손길에 닿은 붓 터치를 관찰하자.

그림 외에도 미디어아트 및 설치물로 다양한 시각 자료가 마련되어 있어, 관람하는 내내 마

치 그림책으로 들어간 듯한 기분을 들게 한다. 전시장을 한발씩 따라갈수록 복잡한 세상은 단 1초도 떠오르지 않는 요술 같은 시간이 계속된다. 아이들은 꾸며진 벽과 천장, 바닥을 보고 상상력을 발휘해 작품에 더 깊이 빠져들고, 어른들은 빛바래지 않은 그 시절의 동심으로 돌아간다.

전시 프로그램 중에는 앤서니 브라운이 어릴 적 즐겨하던 ‘Shape Game’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준비돼 있다. 자유롭게 그린 선이나 도형을 보고 어떤 이미지를 상상해 그리는 게임인데, 작가가 자신의 친형과 자주 하던 놀이라고 한다. 앤서니 브라운이 마련한 상상의 바다에서 헤엄친 후 그에 못지않은 창의력을 뽐내는 시간을 가져 보자. 언젠가 당신의 그림이 누군가에게 무해력을 충전해 줄지도 모르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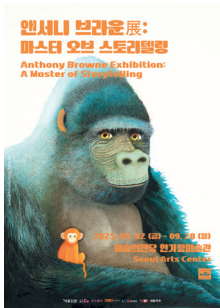
Willy the Dreamer 1997 ©Anthony Browne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1988 ©Anthony Browne

않는 것이 있다

《앤서니 브라운展: 마스터 오브 스토리텔링》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기간 5월 2일~9월 28일
관람 10:00~19:00(입장 마감 18:10)
휴무일 매주 월요일 휴관
이용료 성인(만19~64세) 22,000원
문의 02-730-4368



하나둘 모인 점은,



©Roland Hal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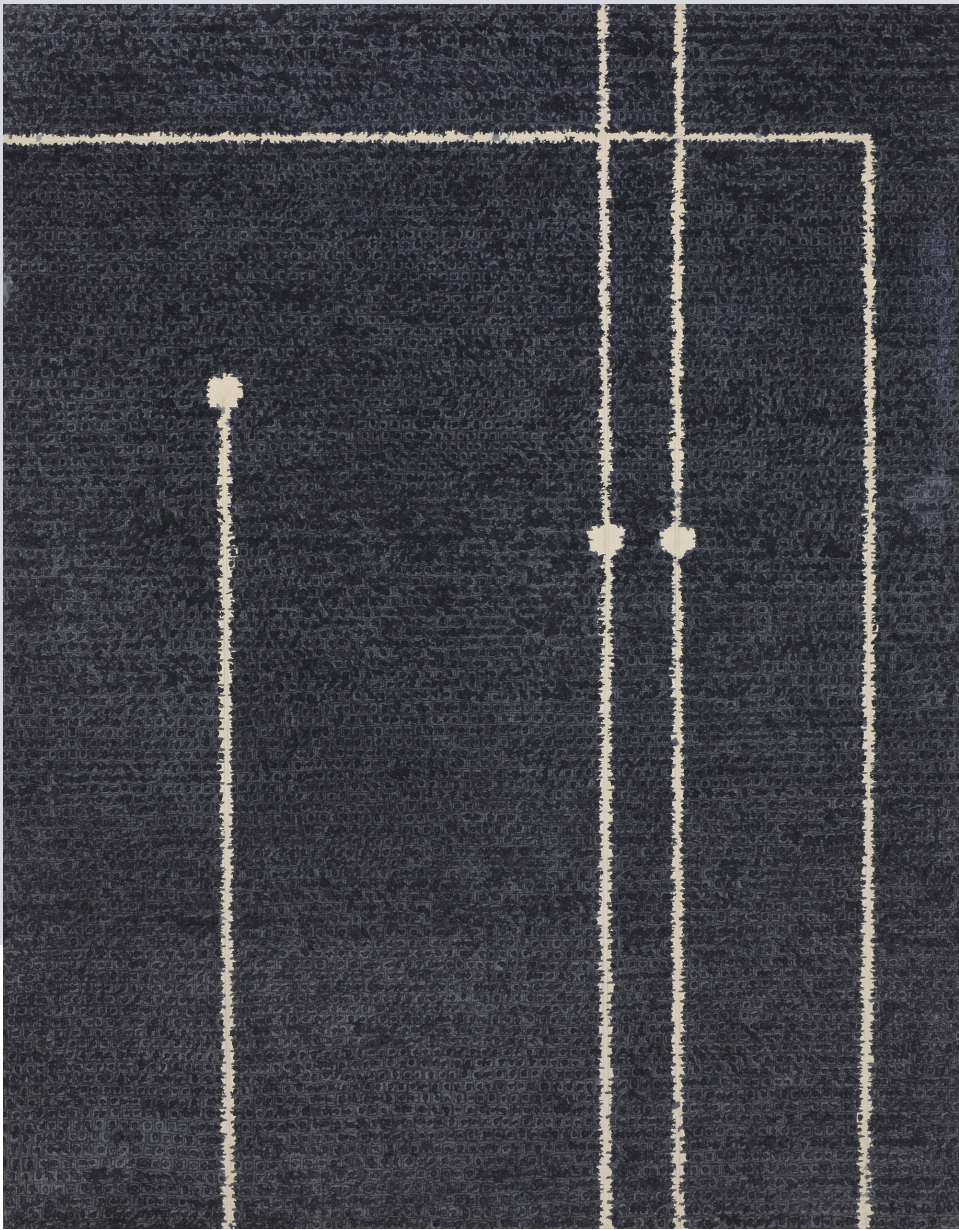
생의 끝까지 만들어 낸 예술

김환기 화백은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다. 그는 일본과 한국에서 미술 활동을 하다가 195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파리에서 활동하며 서구의 현대미술을 접하고, 이후 50세의 나이인 1963년 뉴욕으로 이주하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추상화 작업을 시작했으며, 그의 작품은 더욱 깊이를 더하게 되었다.

이름하여 ‘뉴욕시대’는 그의 예술적 전환점이었으며, 이 시기에 그는 점과 선, 면을 이용한 독창적인 추상 표현을 완성해 나갔다. 그의 예술혼은 마지막 작품 『7-VII-74』에서 더 절실히 느낄 수 있다.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가기 전까지 작업하던 그 작품에는 밀그림으로 보이는 희미한 연필 선이 있다. 이번 전시는 그가 뉴욕에서 활동하던 1960년대부터 1974년 작고할 때까지의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무제한 점, 선, 면

사람들은 무언가를 상상할 때 좋은 것을 상상하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거나, 아주 어릴 적 기뻐던 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말이다. 작가의 작품도 그렇다. 맑고 청량한 색으로 번지는 점들과 짙고 깊게 번지는 선들이 만난 작품들은 감상하는 이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먹게 한다. 그가 작업할



7-VII-74_1974_코튼에 유채_235x183cm, ©(재)환기재단·환기미술관



장소 강릉시립미술관 솔울
기간 4월 2일~6월 29일
관람 10:00~18:00(입장 마감 17:30)
휴무일 매주 월요일 휴관
이용료 성인 10,000원
문의 033-660-2446

©(재)환기재단·환기미술관

때 떠올린 반짝이는 고향 앞바다와 새카만 밤하늘을 보며 느낀 감정들이 작품에 스며들어 관람객들에게 전해지는 건 아닐까?

김환기 화백의 작품들은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그의 '점화' 시리즈는 수많은 작은 점들이 모여 하나의 화면을 구성하는데, 이 점들은 마치 우주의 별들처럼 무한한 확장이 느껴진다. 이러한 작품들은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단순함과 고요함을 추구하는 무해력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

그의 작품은 이러한 무해력이 시각적으로 표현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작품 특징 중 하나를 꼽아 보자면 과장된 색채나 복잡한 구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있다. 대신 담백한 색감과 단순한 형태가 돋보이며, 이는 마치 맑고 깨끗한 자연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김환기의 작품은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평온을 주는 무해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온을 얻고, 삶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할 기회를 얻게 된다. 김환기 화백이 추구했던 미학적 가치를 직접 느껴보길 바란다.

17-IV-71 #201_1971_코튼에 유채_254x202cm
 ©(재)환기재단·환기미술관

우주가 되고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김환기 뉴욕시대》

©강릉시립미술관



‘더 지니어스’ 같다... LG가 만든 ‘라이프스 게임’

- ‘라이프스 게임’, 콘텐츠로 기업 가치까지 높인다

최근 LG그룹에서 만든 게임 예능 프로그램, <라이프스 게임(Life's Game)>이 무려 3천만 조회 수를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LG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 기획한 기업 홍보 콘텐츠지만 <라이프스 게임>은 어떻게 이토록 큰 화제와 열광을 이끌어낸 걸까.

Text 정덕현 칼럼니스트



<더 지니어스> 못지않다? <라이프스 게임>에 쏟아진 찬사

“라이프스 게임(Life's Game)에 참가한 12명의 회사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라이프스 게임>은 그런 익숙한 멘트와 함께 시작한다. 게임 예능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더 지니어스>나 <데블스 플랜> 같은 프로그램을 떠올렸을 게다. 하지만 이어지는 멘트는 이 프로그램이 LG그룹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지금부터 LG그룹 최고의 플레이어들을 가리는 두뇌 전략 서바이벌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홍보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지만, 12명의 출연자들의 이력이 소개되면서 또 한 번 이 프로그램이 두뇌 서바이벌 게임이라는 걸 실감하게 된다.

4년 동안 방탈출 관련 게임을 제작한 방탈출 전문가(룸메이커), 연세대 공대 출신의 명석한 두뇌와 남다른 승부욕의 소유자(공대승부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출연할 수 있었던 세 번의 TV퀴즈쇼 프로그램에서 모두 장원을 차지한 경험(쓰리장원), 라스베이거스 여행 시 대회 입상까지 했던 아마추어 카드게임 플레이어(포커페이스), 멘사 테스트 상위 1% IQ의 멘사 기획위원회 부위원장(멘부장), 인생 자체가 커뮤니티라는 커뮤니티 덕후(커뮤니퀸), 변리사(아이피맨), 해킹대회 파이널리스트 출신 화이트 해커이자 전략 카드 게임 랭커(시크릿코드), 4년간 두뇌게임을 기획, 운영했던 인물(히든코난), 전사 판매 상위 1% 판매 대명장(영업왕), 포브스 선정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리더 30인에 선정된 인물(포브스트), 방탈출 월드 챔피언십 대한민국 국가대표(석호필). 이력만 보면 시청자들 사이에서 “진짜 LG 직원 맞아요?” 하는 반응들이 왜 나오는가를 알 수 있다. 룰 자체를 인지하기도 쉽지 않은 게임을 척척 풀어나가는 명석한 두뇌는 물론이고, 이런 게임 예능에 빠지지 않는 정치와 소통에 있어서도 연합과 배반을 오가는 흥미로운 전개를 보여준다. 카메라가 너무 많아 난감하다는 초기 반응들과 달리,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자연스러운 리액션은 방송의 차원에서도 진짜 <더 지니어스> 같은 완성된 느낌을 준다.



서바이벌의 핵심이랄 수 있는 게임들도 전문회사인 더플레이컴퍼니와 협업함으로써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게임의 신박함이 더해졌다. 다소 복잡한 룰이 진입장벽처럼 여겨지지만, 시청자들은 인터넷에 올라온 룰을 매뉴얼처럼 챙겨보면서 프로그램에 빠져들었다. 그만큼 재미가 있었다는 뜻이다. 결국 반응은 상상을 초월하는 조회수로 돌아왔다. 처음 3화까지 공개된 후 유튜브에서 100만 회 조회 수를 기록하더니 매화 조회수를 갱신해 10화 공개 이후에는 1300만 조회 수를 기록했다. 여기에 SNS와 기타 채널을 합해 통합 조회 수 3000만 회를 돌파한 것이다. 그만큼 뜨거운 반응들이 터져 나온 것인데,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라이프스 게임>은 이례적으로 국내 OTT 웨이브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업 홍보 콘텐츠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일반 대중들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서 인정받았다는 걸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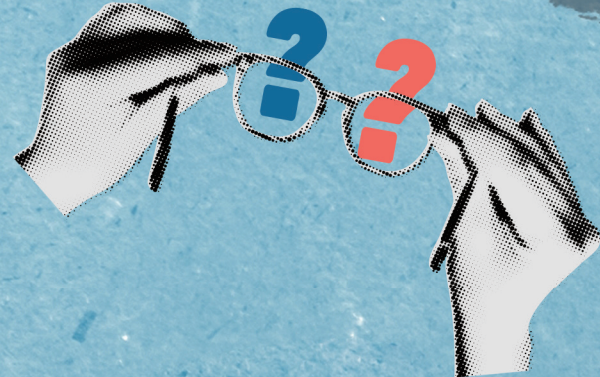
콘텐츠에 녹여낸 기업 가치

<라이프스 게임>이 흥미로운 건 대중적인 게임 에능을 그대로 재연하고 있지만, 그 안에 LG가 추구하는 인재상이나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녹여냈다는 점이다. 첫 회에 등장했던 ‘회의실 예약’ 게임이나 2회

의 ‘출근 엘리베이터’처럼 회사 생활의 일상이 담긴 게임은 물론이고 ‘회사 매출경쟁’, ‘신사업 레이스’ 같은 본격적인 기업 경영을 소재로 녹여낸 게임도 펼쳐진다. 즉 <라이프스 게임>은 게임의 형식을 차용하고 있지만, 그 안에 위기관리 능력이나 대인관계 소통, 문제해결 능력 같은 회사 생활에 요구되는 것들이 게임의 성패를 가르는 역량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게임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LG라는 기업이 추구하는 핵심 역량이라는 메시지가 시청자들에게 스며든다. 물론 어마어마한 이력을 가진 소유자들이 게임에 참가하면서 보여주는 놀라운 면모들은, 때론 진지하고 때론 게임을 플레이하는 듯 즐겁게 일할 것 같은 LG의 인재상을 그려낸다. 이처럼 <라이프스 게임>은 LG의 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재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파한다.

또한 <라이프스 게임>은 기업 내 직원들에게 주는 효과 역시 주목할 만한 콘텐츠다. LG그룹의 직원들이라면 여기 등장한 출연자들의 활약을 응원하며 남다른 애정과 소속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3000만 조회 수가 기록되며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킨 게임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동료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나아가 서로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때론 경쟁하지만 때로는 협업하면서 가까워지는 모습은 계열사 간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계열사 간의 협업은 <라이프스 게임>이라는 하나의 완성된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동료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나아가 서로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때론 경쟁하지만 때로는 협업하면서 가까워지는 모습은 계열사 간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도 구현되었다. LG커뮤니케이션센터가 기획, 연출하고 LG전자가 상품을 후원하며 LG생활건강이 음료를 협찬하고 LG디스커버랩이 장소를 제공하는 식이다.

이제 홍보도 ‘핀(fun)’한 콘텐츠로 하는 시대

사실 기업 홍보라고 하면 너무나 형식적인 영상들이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영상들이 지금처럼 무수히 많은 재미있는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주목받기는 어렵다. 만만찮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만한 효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라이프스 게임>처럼 두뇌 서바이벌 게임이라는 ‘핀(fun)’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건,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라이프스 게임>을 시청자들이 ‘엘 지니어스’ 혹은 ‘엘지게임’이라는 별칭으로 불렀다는 점에서부터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지 않은가. 최근 이러한 대중들의 변화와 맞물려 콘텐츠와의 협업을 통해 기업 홍보를 해내는 성공사례들이 눈에 띈다. 대표적인 작품이 현대자동차와 협업한 손석구 주연의 <밤낚시> 같은 단편영화다. 한밤중 외계 생명체와의 끌고 당기는 낚시를 소재로 하는 이 영화는 독특하게도 ‘자동차의 시선(?)’으로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차 곳곳에 부착된 카메라로 찍은



영상들이다. 그만큼 리얼하고 독특한 구도의 장면들이 등장하지만 그건 또한 협업한 현대자동차의 ‘빌트인 카메라’ 성능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방식이기도 하다. 러닝타임 12분 59초라는 짧은 분량의 영화지만, 더 짧은 광고로도 해낼 수 없는 홍보 효과를 거둔 것이다. 이 작품은 ‘2024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필름 크래프트와 PR 부문 대상, 브랜드 콘텐츠 부문 금상을 차지했고 극장에서도 1000원의 관람료를 받고 개봉해 4만 6천여 명이 관람하는 성과를 거뒀다.

유튜브 같은 새로운 공간이 생겨나면서 콘텐츠가 가진 효과는 이제 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기발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충주시 홍보에 앞장섬으로써 ‘홍보의 신’으로 불린 김선태 주무관이나 ‘진솔아, 나를 믿니?’ 숏폼 영상으로 대박 조회 수를 터뜨린 양산시청 홍보팀 하진솔 주무관의 사례도 재미있는 콘텐츠를 통한 홍보 방식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한국전력공사에서도 개설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에너지 관련 정보는 물론이고 한전 생활을 보여주는 브이로그 등의 영상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라이프스 게임> 같은 콘텐츠 시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한국전력공사 영상콘텐츠에 종종 등장하는 기량이 뛰어난 직원들을 보았을 때, 이들이 뭉쳐 이전에 시도하지 않은 색다른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사람들에게 즐거움은 물론, 한전의 기업 가치까지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보안처



우리 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방위센터가 주관하는 국제 사이버공격방어훈련인, 'Locked Shields 25'에 대한민국-캐나다 연합 훈련팀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가상의 에너지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공격팀의 침투 시도를 실시간으로 방어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우리나라 훈련팀은 지난해보다 4단계 상승한 종합 6위의 성과를 거두었다.

#정보보안처 #NATO #Locked_Shields_25
#사이버공격방어훈련 #종합_6위 #실력_향상 #든든한_방패

대구본부



우리 본부는 산불방지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 29일 대구 동구청과 협력하여 팔공산 국립공원 인근 송전철탑 2개소에 산불감시 CCTV를 설치하였다.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송전철탑을 활용한 산불감시 CCTV를 신속하게 설치하여 산불 대응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대구본부 #동구청 #산불방지 #산불감시_CCTV
#송전철탑_활용 #열심히_감시중 #예방이_최선

수요효율처



우리 처는 '2025년도 취약계층 효율향상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광주·전남지역 지자체 공무원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고효율가전제품 지원사업'의 운영 취지 및 사업 절차 등을 안내하고, 더 많은 고객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홍보 지원을 독려하였다.

#수요효율처 #취약계층_효율향상사업_설명회
#지자체 #적극_홍보 #전_국민이_알_때까지

대전세종충남본부



우리 본부는 '2025년 위약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위약업무는 고객과의 갈등으로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면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으로 변호사, 법무 및 설비 담당자 등 사내외 위원 총 8명으로 구성된 위약자문단은 위약 업무추진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기술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세종충남본부 #위약자문단 #고객_갈등
#어려움_해소 #법률지원 #기술지원

마산지사



우리 지사는 '액티브 시니어 프렌즈'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고령화 사회에서 디지털 소통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1,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중·장년층 인플루언서 4인으로 선발하였다. 특화된 분야의 홍보 채널을 활용해 전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한전과 지역사회, 나아가 국민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마산지사 #액티브_시니어_프렌즈 #인플루언서
#소통_네트워크_확장 #새로운_시작 #원_원

전력연구원



우리 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ESS 산업활성화 및 안전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전력연구원이 개발한 '지능형 배터리 열화관리 시스템(BiMS)'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관리하는 민간 ESS 설비 10개소(100MWh)에 적용하여 실증함에 따라 ESS 안전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력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BiMS
#ESS #산업활성화 #안전확보 #힘을_모아

경기북부분부



우리 본부는 양주 BTB HVDC 변환설비를 대상으로 국내 최초 'AI 패트룰 렌즈' 순시점검 시연회를 진행하였다. 기존 순시점검 표를 들고 다니며 점검하는 모습을 벗어나, 이번에 개발한 첨단 AI 패트룰 렌즈를 통해 실시간 순시 및 원격 협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기북부분부 #AI_패트룰_렌즈_순시점검 #안전성
#효율성 #스마트_유지_관리체계 #두_손_자유롭게

에너지생태계조성처



우리 처는 전남에너지산업협회와 공동으로 '한전 중소벤처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는 에너지 신산업 관련 정부 정책 및 시장동향 설명, 한전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1:1 맞춤형 상담부스를 운영하여 참여기업이 실제 사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상담을 진행하였다.

#에너지생태계조성처 #전남에너지산업협회
#한전_중소벤처_지원사업_설명회 #현장_상담_환영

자랑질 코너

무엇이든 자랑하세요!

빵보다 철탑?! 대전의 명물 '대덕덕진 15호 철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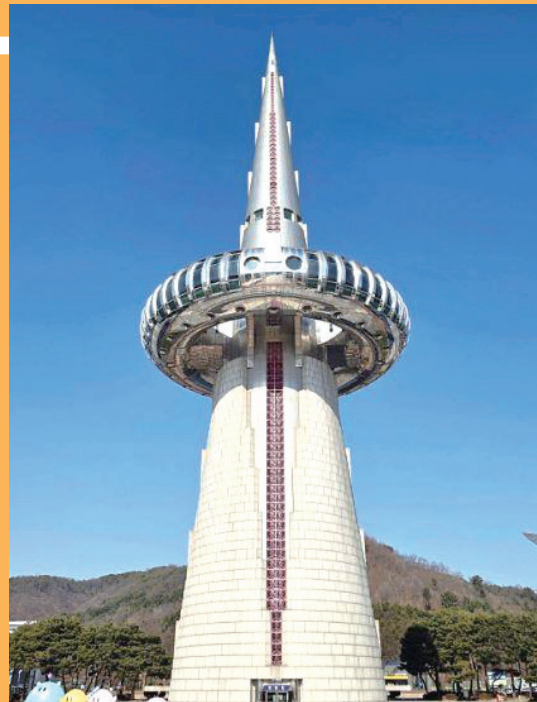
이호준 대전세종충남본부 기획관리실 차장



대전의 명물이 된 송전철탑, 대덕덕진 15호. 대전엑스포 상징물인 한빛탑을 본따 만들었다.

노잼도시로 알려진 대전에 재미있는 철탑이 있어 자랑하고 싶다. '대덕덕진 15호 환경친화형 철탑'은, 국내 최초 엑스포인 '대전엑스포'의 상징 한빛탑을 본뜬 모형으로 설치되어 일대 전력공급을 책임지고 있다. 대전의 관문인 고속도로 북대전 나들목에 설치되어 차량으로 대전을 방문할 때 누구나 한번은 보았을 이 철탑은, 시민들도 '철탑'으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진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대전엑스포
상징물 한빛탑



#겨울, 텃밭을 일구다



1. 흙 밟기



2. 서로 힘을 합해 흘리지 않게 조심조심



3. 밭 갈기



4. "으" 처음 하는 삽질도 거뜰



5. 밭 고르기



6. "씨앗들아, 쑥쑥 자라라" 애정 어린 토닥임

텃밭과 함께 동료애는 자란다!

이영호 강원본부 기획관리실 차장

지난 겨울 강원본부는 한 평뿐이던 텃밭을 확장하는 대역사를 시작했다. 각 부서별로 함께 흙을 부어 밭을 갈고 땅을 평평하게 고르며 텃밭을 일구었다. 우리 손으로 일군 텃밭을 뿌듯하게 바라보며 봄의 수확을 함께 소망했다. 드디어 강원도에 봄이 찾아왔고 우리가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고 쑥쑥 잘 자라서 번듯한 녹색 채소의 모습을 갖추었다. 루꼴라, 로메인, 적색상추 등 직원들의 취향이 반영된 채소들은 이슬을 머금은 채 저마다 싱싱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수확의 기쁨을 함께 하고 싱싱한 채소를 수확해 함께 나눠 먹으며 강원본부는 돈독한 팀워크를 다진다.



1. 잘 자란 채소들 곁에서 의기양양한 강원본부 사우들



2. 싱싱한 텃밭 채소들



3. "어떻게 먹을까?" 세상 진지한 텃밭 회의



4. 저마다 좋아하는 채소를 들고 함박웃음

#봄, 수확의 기쁨을 나누다

자랑질 코너에서는 사우 여러분의 취향, 재능, 취미, 자녀 등등 무엇이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우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코너이니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자랑해 주세요.

<KEPCO> N행시

6월호 테마 키워드로 나만의 N행시를
지어 보세요.
참여자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6월의 주제 ‘무해력’

무 수한 별빛 아래서
해 맑은 미소를 지으며
력(역) 동적인 꿈을 꾸는 우리들

참여 방법 QR코드 스캔 후 답변 제출
접수 마감 6월 20일(금)까지
이벤트 상품 신세계 상품권 2만원권
선물발송일 7월 10일경



이벤트 참여하기

5월호 N행시 당첨자

윤*현(1079)
감 사할 일이 매일 생기는 이유는
사 소한 행복을 놓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김*훈(4271)
감 동의 순간을 떠올려 보자면,
사 랑하는 아들 찬솔이가 아빠라고 처음으로 나를 불러주던
날입니다.

김*영(3935)
감 동이었어. 너희와 함께한 모든 계절이..
사 랑하는 아들, 딸 앞으로 더 많은 날들 함께 행복하자.

김*영(6308)
감 동은 늘 사소한 순간에 숨어 있고
사 랑은 그렇게 조용히 다가오는 거야.

서*아(5457)
감 사한 지구를 위해,
사 용할 만큼만 전기 쓰자!

박*영(2083)
감 사는 사소한 표현 같지만
사 실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입니다.

김*훈(3920)
감 사합니다. 이 고맙다는 말을
사 실 쑥스러워서 못했는데 이렇게 전해봅니다.

이*혁(4640)
감 성이 이성을 앞설 때,
사 랑하는 이를 대할 때

최*훈(4943)
감 사합니다. 세상에 존재하게 해줘서
사 랑합니다. 번듯한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길러줘서

고*진(3956)
감 히 쉬운 날이 없지만
사 라지지 않는 책임감으로 오늘도 견뎌냅니다.

KEPCO

2025
June
vol.624

통권 624호 2025년 6월호(월간)
등록번호 나주 마00003
발행일 2025년 5월 30일
발행인 김동철
편집인 백수현

편집 한국전력공사 홍보처 (061)345-3115, 3125, 3128
주소 (우)58222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기획·디자인 ㈜이팝
인쇄 ㈜대유기획인쇄
창간일 1961년 8월 31일



한국전력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국가전력망은 국가경쟁력

미래산업의 성장은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기본이기에
한국전력은 전력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 한국전력은 전력질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